

“도민의 소망”



적극행정

“확실한 변화”



사회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우수사례



발간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 일생동안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는 신념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행정 영역에서도 공직자의 노력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요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 환경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 현실(VR) 등 만화와 영화 속에서 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규제, 그리고 기존의 행정 방식은 이렇게 빠른 변화에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차상 문제 등 제도와 현실이 괴리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 시군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발굴하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에게 시상과 최고 등급의 성과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정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 공직자들의 노력이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과들을 모두가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적극’과 ‘혁신’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도민의 삶이 바뀌는 ‘사회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쳐주리라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지사 김명록

01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반기

대상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공급	08
최우수상	광양만권 산업단지 대개조	13
우수상	느림보 열차 체험	16
	드론택배 하늘길 확대	19
	대불산단 중앙분리대 제거	21
장려상	전남산 녹차 추출물 이용 손세정제 개발	24
	구례 천은사 입장료 폐지	28
	불법 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31



02

사회혁신 우수사례

하반기

| 시군 및 지방공사 |

대상	나주천 인접공사 통합발주	33
최우수상	지방세 신고없이 스마트하게 과세	35
우수상	보성군 홍보가기가 막혀	39
	남향 유류부지 사계절 꽃정원	42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촌 확대	45
	섬 지역 전자도서관 개관	48

| 전라남도 |

최우수상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52
우수상	초동학생 홈스쿨 체험박스	58
	부동산특조법 보증료 협약	62
	국가 면역치료플랫폼	6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68
장려상	전남 사회혁신플랫폼	71
	농어민 공익수당	75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78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81

| 우수사례 |

여수시 가치나눔냉장고	86
강진군 차이나는 배달소	90
안전사고 작은배려로 예방 할 수있어요	94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팅	97
바다가 품긴 벅찬 쓰레기	100



01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반기

- 대상**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공급
- 최우수상** 광양만권 산업단지 대개조
- 우수상** 느림보 열차 체험
드론택배 하늘길 확대
대불산단 중앙분리대 제거
- 장려상** 전남산 녹차 추출물 이용 손세정제 개발
구례 천은사 입장료 폐지
불법 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하반기

| 시군 및 지방공사 |

- 대상** 나주천 인접공사 통합발주
- 최우수상** 지방세 신고없이 스마트하게 과세
- 우수상** 보성군 홍보가기가 막혀
남향 유류부지 사계절 꽃정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촌 확대
섬 지역 전자도서관 개관

| 전라남도 |

- 최우수상**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 우수상**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부동산특조법 보증료 협약
국가 면역치료물렛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 장려상** 전남 사회혁신물렛폼
농어민 공익수당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남도
유동시설팀장
강성일전남도
농식품유통과
주무관
윤희경

힘내세요, 코로나19 극복 상생 프로젝트 전국 최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



적극 브리핑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전면 중단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공급업체에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내용 | 전국 최초, 학교급식을 대신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에 배송

효과 |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에 소득·경영 안정화,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선한 식재료 제공으로 일상에 소소한 도움

“유례없는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전면 중단!

학생, 친환경농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모두를 위한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됐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공급되던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납품이 전면 중단됐고, 당초 개학 연기가 짧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장기화됨에(3~5월) 따라 오랫동안 학교급식 납품을 못 하게 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공급업체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 전체 소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싼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상황이었다.

학생 가정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가정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식재료 구입과 식사 준비가 갑작스러운 부담이 돼가고 있었다.

발상의 전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학생 가정으로
보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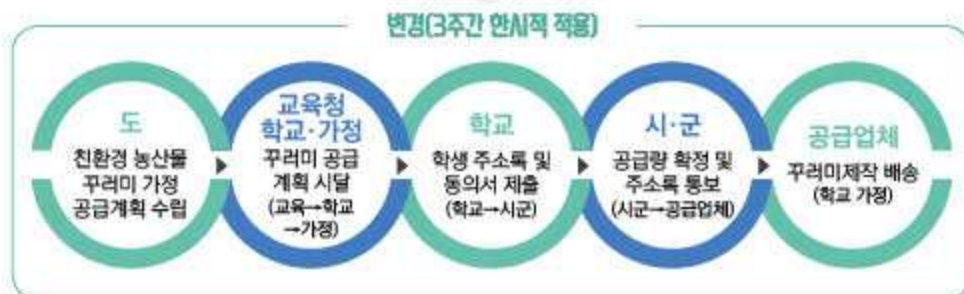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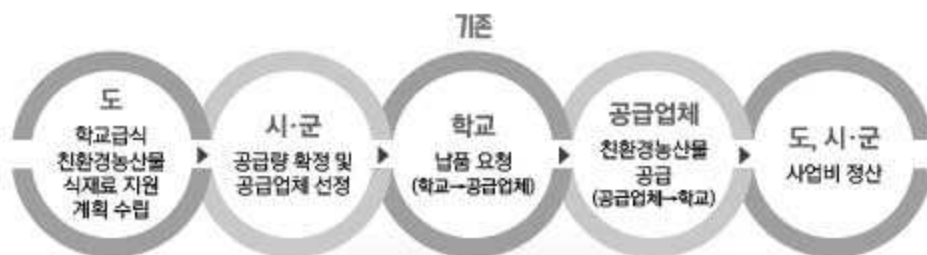
학교급식이 중단되던 초기, 친환경농산물을 판촉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여러 소비촉진 행사를 펼쳤으나, 학교 개학 연기가 길어지면서 그 많은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년 한 해 동안 학교급식용으로 곡류 3,362톤, 과일류 1,232톤, 채소류 3,905톤 등 총 8,499톤의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됐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에는 공급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는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상 첫 4차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그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산물 관련자들... 무언가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그러던 차에 ‘급식을 꼭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은 어차피 집행할 수 없는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를 만들어 학생 가정으로 배송해 주자는 아이디어로 발전했다. 이 아이디어라면 학생 가정도 편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도 보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기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방식은 공급업체에서 학교로 식재료를 배송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꾸러미 사업은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아 주소록을 받은 후 공급업체에서 바로 학생 가정으로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정작 꾸러미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5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다. 4·15 총선을 앞둔 공직선거법, 학교에서만 급식 공급이 가능하다는 학교급식법, 일시에 23만여 꾸러미를 공급해야 하는 공급시스템 등이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법적 자문 등을 통해 해결했다.

또한, 시군에서 공급가격 결정협의회를 운영해 시군, 농가, 공급업체, 교육청의 의견 조율을 통해 시군 특성에 맞는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했다.

사업 장애 요인	장애요인 해결
23만 학생에게 꾸러미 공급	유관기관 협업으로 사업추진
1. 공직선거법 저촉	선관위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으로 해결
2. 학교급식법 사업근거	교육부 학교급식법 유권해석 근거 마련 감사원 적극행정 적용 자문(추진의지 제고)
3. 꾸러미 품목 구성 선정	시군·교육청 공급가격결정협의회 통해 시군, 공급업체, 교육청, 농가 의견 조율
4. 꾸러미 공급시스템 부재	공급업체 기존 시군 57개 공급업체 활용
5. 사업추진 의지 부재 (교육청, 학교)	중대본 중대본회의에서 4차례 건의로 교육청 및 다른 시도 참여 확산

전국 최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으로
학생, 학부모,
친환경생산
농가, 공급업체,
학교 모두 웃는
1석 5조 효과

꾸러미 배송 대상자는 전남 도내 초·중·고(특수) 학생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생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꾸러미에는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을 담았고 모두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이며 꾸러미 1개당 4만 원 상당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분을 제외하고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1인당 24,000원 규모다. 모두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지원 사업은 전례 없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를 거쳐 서울, 경기 등 국내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전국 531만 농산물을 꾸러미 사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은 학교에서 먹었던 급식 대신 꾸러미를 받아 집에서 예전처럼 맛있는 급식을 먹었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먹는 식재료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 덩어리 식재료 구입비용도 줄어들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은 판로가 막혀 막막하던 상황에서 꾸러미 사업을 통해 1,428톤의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었고, 공급업체는 다시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또한 3월 말에 20%까지 폭락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꾸러미 사업 추진 이후 다시 정상 가격을 회복해 농가 시름을 덜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가격 증감율(KREI)



꾸러미 사업의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효과성

먼저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일상에 소소한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의 소득·경영 안정에 큰 힘이 됐다.

파급력

비대면 시장 확대에 발맞춰 친환경농산물 유통 온라인 쇼핑몰과의 본격적인 연계로 판로가 더욱 확대됐다.

- 전남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꾸러미 연계 판매(6월) 후 매출 급증
● 10월 말 기준 매출액 282억 원 달성
(19년 대비 63.8억 원 대비 342% 성장)

확장성

'단품' 위주에서 '꾸러미' 단위로 판매해 트렌드 변화를 선도했다.

- 농산물 꾸러미를 기부, 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하여 신규수요 창출
- 전국 최초로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라남도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제작·보급 등 높은 사업 확장성

미담 사례



학부모 및 학생

-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식비 걱정했는데, 식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일감 부족으로 소득이 없었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됐다.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성이 정말 좋고, 일주일 식재료가 해결 됨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이라 안심이 된다.
-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재료를 먹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 된다.
- 매일 집에서 애들 밥해주느라 식재료가 걱정됐는데 이렇게 싱싱한 친환경 농산물을 받아서 정말 좋다.



친환경농업인

- 학교급식 중단으로 납품되지 못한 친환경농산물이 저장고에 쌓여있고, 일부 농산물은 폐기처분 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꾸러미로 완전 해결되어 감사하다.
- 대파 수확을 못 하고 갈아엎을 뻔했는데 이번 꾸러미 사업으로 전부 납품하게 돼서 정말 좋다.



공급업체

- 학교급식 중단으로 근로자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했는데 이번 꾸러미 사업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꾸러미 사업이 매출 증가에 많은 힘이 됐다.

상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남도
산업자원팀장
오미경



전남도
혁신경제과
주무관
한재국

제조업의 중심인 산업단지를 대개조해 혁신성장 주도!



배경 | 지역 제조업의 핵심이었던 산업단지가 노후화로 인해 성장한계에 직면
내용 | 여수산단을 거점으로 광양만권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대개조
효과 | 신산업 육성, 산단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산단 혁신기반 조성 및 미래 지역 일자리 창출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울촌산단을 광양만권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대개조해 미래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생산, 고용의 핵심 지역이지만 노후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성장한계에 직면했다. 이는 국가적 문제로 정부는 사상 최초로 산단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산단대개조 사업을 마련했다. 우리 광양만권 산단이 우선 선정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산단 관계자들의 의견과 지지 그리고 현실성 있는 신청서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문기관 용역보다는 민관협력에 주력했다. 그 결과, 1차연도에 국비 809억 원을 확보했고, 온실가스 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산단의 스마트화, 고부가 정밀 소재부품산업 개발로 미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단 혁신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 고용의 49% 담당



경쟁력 약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전남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70~80%를 차지하는 지역 경제의 중추이나, 가동·고용 여력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4년 이후 전남 산업 생산액과 수출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고, 특히 도 대표 산업(여수, 광양 등)들은 노후화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날로 활기를 잃어갔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해 정부는 '20년 처음으로 획일적인 개별 산업지원에서 탈피해 거점산업과 인근지역을 묶어 산업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산업대개조 공모 사업을 마련했다.

전남도 산업 현황

전남도 산업 생산액(조원)

산업 생산액 6년간 약 30% 감소



전남도 산업 수출액(억불)

산업 수출액 6년간 약 35% 감소



정부 뉴딜 정책에 앞선 선제적·창의적 사업계획으로 산업 대개조 공모 선정

공모 신청에 앞서 정부의 평가지표는 우리 전남에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었다. 기업 수, 일자리 수 등 획일화된 평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수도권이나 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뽑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산업 대개조 사업의 의의를 살려 산업 주력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표 수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갔다. 다행히 이를 받아들여 공모지침이 개선되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남 내 관계기관의 결집이었다. 자체 추진위원회(도·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구성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도의 대표적 노후산업인 여수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광양국가산업단, 울촌제1산업단, 여수·광양항을 연계하는 광양만권 산업이 선정됐다.

우리 도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의 협력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 믿었다. 결국엔 용역비 한 톨 안 들이고 민관협력을 통해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업' 비전을 세웠다. 비전을 실현할 46개 사업도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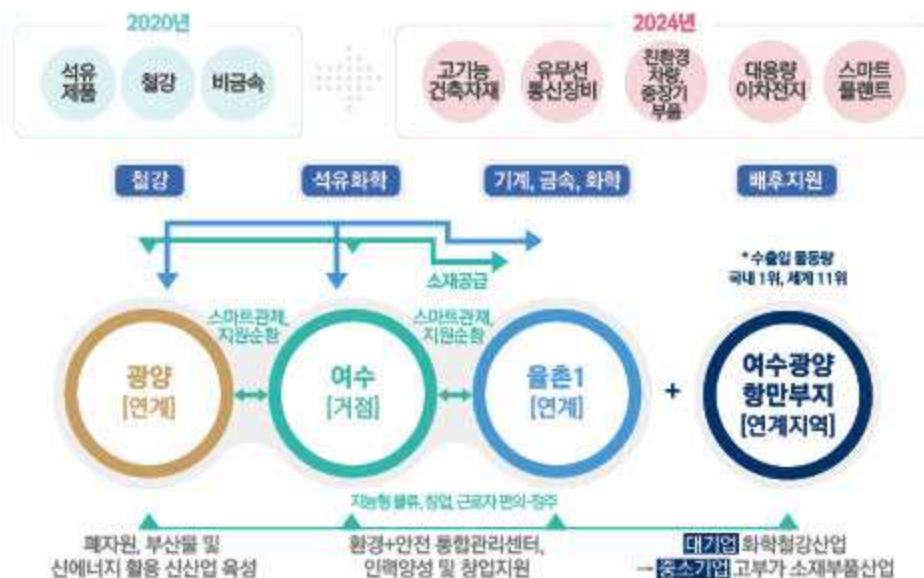
이런 전략을 통해 정부 뉴딜 정책에 선제적·창의적으로 대응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정부 정책과 일치함에 따라 정성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업 1차년도인 '21년에 21개 사업 국비 809억 원 확보

저탄소 지능형 신산업 창출 산업으로 전환

사업 기간('21.~'24.) 동안 광양만권 산업이 저탄소 지능형 신산업 창출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약 1조2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하고 일 하기 좋은 혁신 산단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안전 통합 관리센터 구축 등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하고, 온실가스, 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와 더불어 복합문화센터, 행복주택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확충해 산업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재직자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스마트 인재로 성장하고, 근무하고 싶은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칭이 해소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나 우리 전남의 상징이 될 것으로 확실한다.



상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
주무관
형남준

남도를 선으로? 느낌보 열차체험으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적극 브리핑

배경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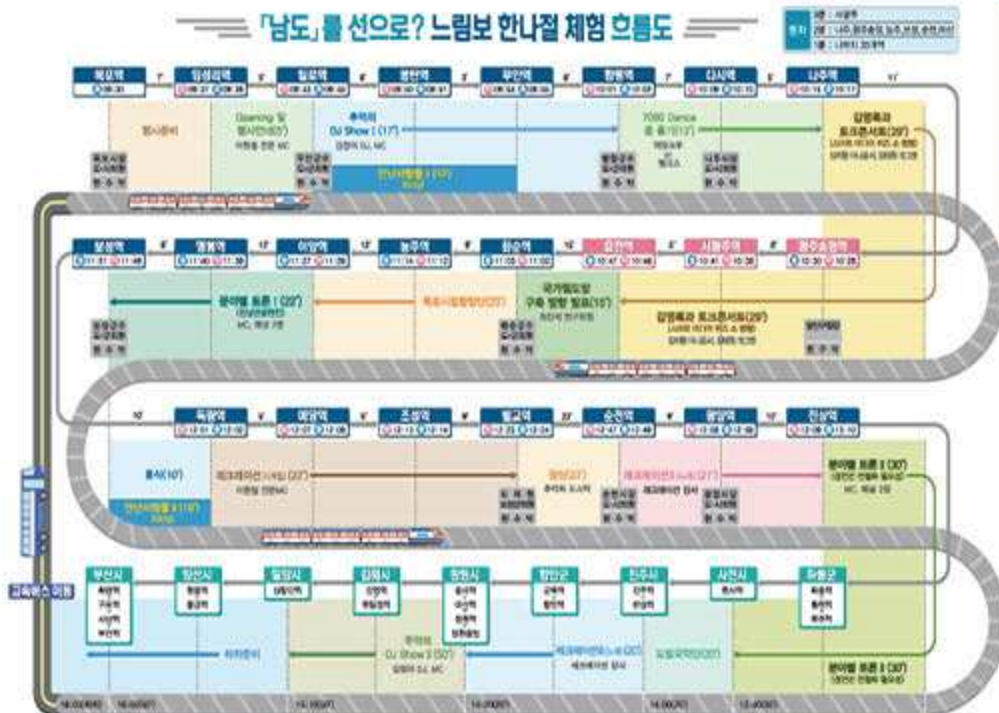
내용 목포~부산(388km, 6시간 33분) '느림보열차 유튜브 생중계'로 경전선 필요성 홍보

효과 경전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대통령 전철화 지원 약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성공

목포~부산 388km, 6시간 33분의 느림보열차 유튜브 생중계로 전철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경전선(광주송정~삼랑진) 구간 중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길'이 있다. 광주송정~순천(50~60km/h) 구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곳을 알려 전철화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남해안 무궁화 열차 탑승 체험을 생생하게 알려 이슈화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19. 4. 27.(토) 09:30분에 목포역을 출발한 체험 열차는 16:03분, 부산 부전역에 도착하였다. 6시간 33분이 소요됐다. 전라남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립대학교, 도민 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단, 생활공감모니터단, 민원메신저, 청년의 목소리, 도출입 언론인 등 170여 명이 동승했으며, 체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끔 했다.



6시간 33분 동안 열차 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 도는 무엇보다 느림보열차의 에너지를 듣는 데 집중했다. 승객들이 탑승한 칸으로 이동해 불편한 점들을 세밀히 물었다. '경전선 전철화 필요성'과 '전남관광 현안'에 대해 철도와 관광전문가의 토론이 펼쳐지고 뒤를 이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국가철도망 구축방향 발표'도 있었다. 경전선 전철화의 당위성을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체험 시작과 토론 중간 중간에 추억의 DJ 쇼, 7080 댄스 몸물기, 버스커 공연, 목포시립합창단 및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레크레이션 등 각종 프로그램 진행하여 6시간이 넘는 지루한 여정을 달랠 수 있었다.



느림보 열차 한나절 체험



실무상 어려움의 해결과 전 과정을 요약하면?

체험기차는 한국철도공사와 목포역에 협력을 요청하여 평상시 3량의 열차에서 행사 당일 4량으로 증량했으며, 이 중 2량을 임대했다. 출발 30분 전 승차대기 시간에 재빨리 무대를 설치했다. 출발 및 경유지인 목포, 무안, 함평, 나주, 광주 광산구, 화순, 보성, 순천, 광양시에 사전 계획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덕분에 해당 지역 정차역마다 수많은 주민이 환영 인사와 함께 경전선 전철화를 응원해 주었다. 종착역인 부산 부전역에는 400여 명의 재부산호남향우회원 및 부산새마을회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체험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사회단체 연합회장이 정부에 전철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열차체험은 지역의 열망을 모아 경전선 전철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탑승 체험기를 제작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경유지 국회 등에 배부했다.

그 결과 '19년 7월 전남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철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년 12월 19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

총연장 122.2km에 사업비는 1조 7,703억 원이 투입되며 설계속도 250km/h에 이른다. 경제성(BC 0.88)은 부족했으나, 느림보 열차 체험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종합평가(AHP)에서 0.653을 받아 통과됐다. AHP는 0.5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타당함을 나타내는 수치다.

체험으로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을까?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20. 5. ~ '21. 5.)하고 있다. 향후 남해안 철도 목포~보성구간이 '23년 개통하고,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여 동시에 개통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 33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4시간 10여 분이 단축된다. 남해안고속전철 시대가 열리게 되면 영호남 문화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상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남도
토지관리과장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
주무관
조은진

드론택배 하늘길 확대로 낙도·오지 도민 물품 배송이 편리해진다!



배경 | 낙도·오지 도민이 택배 등 물품을 배송받기 위해서는 최소 7시간 이상 소요

내용 | 2년에 걸친 드론택배 시험운항을 통해 물품 이동시간을 1시간 이내로 축소(실증사업)

효과 | 의약품, 식료품 등 긴급 물품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낙도·오지에 신속한 물품 배송 가능

“배로 7시간 이상 소요되던 물품 배송을 1시간 만에 받았어요.”

전남의 낙도·오지 도민들이 내 집 앞마당까지 물품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배로 최소 7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빠른 교통편이 없고 거리도 멀거니와 물품 이동경로 역시 육지보다 2단계 이상은 더 거치기 때문이다. 우리도는 이러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배달 사업」 공모에 도전해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18년 드론배달 모델 개발을 시작하여 '19년 고흥군, 보성군 내 32점의 드론배달점을 설치했고, 지금은 항로 시험운항 중에 있다. 앞으로도 본격 운항을 위해 섬 없이 달려갈 것이다.



드론택배 시험 운항

직접 배를 타고 운송하는
물품 배송 절차,
개선할 수 있을까?

낙도·오지에 배를 타고 운송하는 물품 배송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드론 배달점 모델을 개발했다. 배달점에서 시작되는 드론택배 하늘길을 개척하여 이동 경로를 만들었다. 이 과정과 시험운항을 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이로써, 최소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긴급 물품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낙도·오지에
신속한 물품 배송

전남 고흥군 낙도·오지 지역은 지형상 섬과 섬 사이의 풍속이 육지보다 강해 시험운항에 기상 영향이 많이 받는다. 현재 시험운항결과 28%의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만, 기상악화에도 강한 기체가 개발되면 높은 성공률이 예상된다.



향후 계획과
드론 물류
미래의 모습은?

우리 도는 드론 물품 배송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주소기반 드론 배달 서비스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드론 배달 서비스 도입 경제성을 분석한다. 향후 드론기체 보급화를 통한 실증 사업이 확대되면 민간과 협업한 드론택배 서비스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상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대불산단 대형선박구조물 운반 이젠 장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배경 | 대불산단 내 화단 중앙분리형 도로로 인해 대형선박 구조물 운송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교통 안전을 생각하면 철거할 수 없는 상황
내용 | 관계기관 협업·적극행정으로 도로 내 중앙분리형 화단을 제거하고 교통 안전시설 보강(CCTV, 통행안전 유도차량 배치 등)
효과 | 산단 내 선박 제조 업체의 운송기간 단축 및 교통안전 확보

“기업 경쟁력? 교통 안전?
하나를 포기하기 보다는 모두 다 잡아보자”

대불산단 내 기업은 80% 이상이 조선 관련 업종이다. 그렇기에 대불산단 내에서 대형선박 블록 등이 운송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조선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거대한 부품 운송을 원활히 하려면 넓은 도로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대불산단 내 도로는 교통안전 시설(중앙 분리대 등) 때문에 대형 선박구조물(폭 30cm)을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들의 개선 요구는 빗발쳤지만 시설을 제거로 야기될 안전 문제로 장기간(10년)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를 이해해 보자는 생각에 관계기관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교통안전을 지키면서 기업 애로 사항도 함께 해소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대형선박구조물 운반에
장애가 되는
산단 도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을까?

산단 도로에 있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가로등, 신호등 등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기업들이 대형선박구조물을 운반하는 데 걸림돌이었다. 대불산단 입주 기업의 80%를 차지하는 조선 관련 기업들은 도로 여건 개선을 수년간 요구해 오고 있었다.

관계기관인 영암경찰서는 화단형 중앙 분리대가 도로교통 안전에 필수적이라 판단해 다른 방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무려 10여 년 간 교통안전협의회에서 부결되어 기업 애로사항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해 왔다.



화단형 중앙 분리대(정비 전)



화단형 중앙 분리대(정비 후)

관계기관이
신속 · 협업 ·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 해결!

가장 먼저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혹시 모를 위법과 부당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문제가 없음을 근거로 도로시설을 개선 필요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해 나갔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의 만족과 안전이었다. 화단형 중앙 분리대와 가로등을 없애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만, 교통안전은 미흡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도는 오랜 논의 끝에 대안을 찾아낼 수 있었다. 과속 방지 CCTV를 추가 설치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며, 대규모 선박구조물의 이동은 일반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동시에 앞·뒤로 동행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해 일반 차량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제작 중인 대형선박 구조물

적극행정으로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및
교통 안전성 확보

그 결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높은 평가(76.8점)를 받아 1위로 선정됐다.('20. 2.)

KTV 한국정책방송 “우리동네 개선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방영

◆ 방영일시 | 2020. 3. 7.(‘8:30)

◆ 링크 주소 |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94754



조선 기자재 업체 인터뷰(KTV, '20. 3.)

“조선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상황에서 유관부서에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물류비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차산업연구소장
손 동 모전남도
차산업연구소
농업연구사
오 봉 윤

전남산 녹차 추출물을 이용한 손세정제, 코로나19는 막고! 농가 소득은 높이고!



적극 브리핑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세정제 수요가 급증하여 시중에 품귀현상까지 발생
내용 | 지역에 풍부한 천연자원이자, 카테킨 성분이 많은 녹차를 활용한 손세정제 상품화 성공
효과 | 도내 녹차 찻잎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손소독제 공급난 해소

「녹차 세정제」 개발... 코로나19 예방하고 차 소비 늘리고, 제조업체에겐 무상 기술이전하여 1석 3조 효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균성 손소독제, 세정제 수요가 급증했다. 심지어 시중에는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었다.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는 카테킨¹⁾이 찻잎에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분을 항균제, 항바이러스제로 활용한 사례는 없었다.

우리는 전남에 풍부한 찻잎과 그동안 쌓아온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두를 과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이겨낼 무기를 만들고 싶었다. 특히, 카테킨 성분이 유난히 많은 전남 유기농 차(茶)가 귀중한 농특산 자원임을 알리고 싶었다. 오랜 노력 끝에 녹차 손세정제를 완성하고 상품화를 시켜줄 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이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여름찻잎으로
막는다고?

전남산 유기농
녹차 추출물 이용
항균성 손세정제,
손소독제 상품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에 우리나라 방역도 비상이다. 개인소득이 방역의 핵심이 되면서 손씻기는 습관화가 됐다. 손소독제와 세정제가 급격한 관심을 받으면서 시중에는 품귀현상마저 돌고 있었다. 자주 써야 하는 만큼 화학제품이 아닌 친환경제품은 더욱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 찻잎에 폴리페놀²⁾류인 플라보노이드³⁾, 카테킨 등 항균 기능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차산업연구소는 이 성분을 이용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전국 52%를 차지하는 차 재배면적을 갖고 있고 차 재배농가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여름찻잎은 맛이 쓰고 떨어 대부분 폐기되기 마련이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농가에 추가소득이 생기는 것은 물론 부족한 국내 손소독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우리 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찻잎 속 항균성분에 주목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다. '17년부터 연구해 온 녹차추출물 항균효과는 예상대로 놀라웠다. 대장균 89%, 총치균 83%, 포도상구균 92%가 감소했다. 찻잎 속 유용성분을 최대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카테킨이 많은 여름 찻잎을 이용해 손세정제를 개발했다.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 세정제가 아니라 화장품으로 상품화됐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추출한 물질이기에 유기농화장품 기업에서 관심을 보였다.

산업화 업무협약 체결(19. 6. 7.):

유기농화장품 전문업 ㈜에코먼트, 항균성 손세정제 산업화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세정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우리가 개발한 녹차 세정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화장품이 아닌 방역 물품으로서 손세정제 기업과 시장 출시를 협의했다.('20. 1월 말) 그리고 빠른 상품화를 위해 즉시 연구개발 결과를 기술이전 했다.('20. 2. 7.)

- 품종 및 수확시기별 찻잎 기능성 성분변화 연구결과 제공

- 녹차 폴리페놀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관한 참고문헌 논문자료 제공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코로나19 예방 항균성 손소독제와 손세정제가 되어 3종의 제품으로 생산·판매·유통되고 있다.

2) 폴리페놀: 우리 몸에 있는 유해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물질 중 하나

3) 플라보노이드: 식물 유래 폴리페놀 계열의 화합물



녹차세정제 제품

1) 카테킨: 녹차 특유의 씹새로운 맛으로, 항암효과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됨.

손소독제형 | 스프레이(4천 원/30ml), 겔(7천 5백 원/250ml)
2종 출시('20. 2. 중)
| 생산 및 판매 : 7만 개 출시, 매출 280백만 원
(온라인 쿠팡, 위메프 등 판매)
손세정제형 | 비블형 손세정제(9천 원/150g/개)
"키린" 상품명으로 출시('20. 6. 중)
| 생산 및 판매 : 6천 개 출시, 매출 30백만 원
- 온라인, 키린홈피, 네이버 S스토어
특이사항 | 제품 포장지에 지역특산물 보성 유기농 찻잎과 전라남도 로고 홍보
사회적 시급성 반영 |
수도권지역 산업체에 적극 기술이전하여 산업화 성공

뉴스, 보도자료

'녹차 세정제' 첫 선...코로나 예방하고 차 소비 늘리고

Posted : 2020-04-24 04:28

전남농업기술원, 찻잎 활용 손 세정제 개발
유기 농산물 활용 기술, 제조 업체에 무상 기술 이전



찻잎 추출물 이용 항균성 손세정제
기술이전으로 상품화 성공" 홍보('20. 3. 9.)

※ 연구개발 기술의 산업화 성과로 YTN 전국 방송('20. 3. 21.) 6회 방송
https://www.ytn.co.kr/_ln/0115_202003212255099083 (동영상뉴스)

연구 개발한 '항균성 손세정제 제조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공장과 시설 부재로 도내 기술수요 희망업체가 없어 산업화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고 찻잎에 함유된 항균성 카테킨 추출물과 발효 주정을 이용한 손소독제, 손세정제의 제품군별 식약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상품화의 장애가 있었지만, 지역간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연구개발기술을 산업화에 노력하여 항균성 손소독제의 효능(항균성 99.9%)을 포함한 더 큰 범주의 손세정제로 상품화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차 재배농가,
산업체 ㈜에코먼트,
차산업연구소의
바람은?

찾임 항균성 손세정제 제조기술 수요 산업체에 계속 기술이전 추진
도 외 | 아이코닉브랜드, 티유사이언스㈜ /
서울 소재 산업체와 업무협약('20. 4. 13.)
※ 독일,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 각국 바이어들에게 홍보
중이며 좋은 반응
제 안 | 최종제품 포장지에 보성 유기농 찻잎과 전라남도 로고 부착
수출제품 | 한국 녹차 홍보, 국내제품 : 지역특산물 인지도 제고
도 내 | 보성농협(유동), 메디셀(생산) 기술수요 업체 발굴 손소
독제 생산, 판매 증
초·중·고교에 납품할 제품 생산 유동 확정, 사업화 업무
협약 추진('20. 9. 9.)
⇒ ㈜메디셀에서 손소독제 생산하도록 녹차 추출물 원료
소재화 기술지원하여 "닥터그린" 출시

전남 보성군 유기농 차 재배농가

청룡다원, 백록다원, 보림제다 등 보성 유기농 차 재배농가의 찻잎 판매
량이 늘었다. 녹차 추출물 소재 원료화로 '20년 상반기에만 찻잎 건엽
500kg 이상이 확대됐다.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에코먼트 신장은 대표

녹차 추출물 이용 손세정제 개발 제품은 피부 트러블이나 민감한 부분이
개선되며, 유기농 소재를 신뢰하고, 녹차 성분이 안전하게 항균효과를
더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유기농
녹차의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원료로 이용 확대가 기대된다.

연구기관 차산업연구소

오설록 다원의 녹차는 대기업 차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이나 건강
기능식품 원료로 제품화되어 상품화가 진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성공
하고 있다. 여기에 비교하여 전남산 유기농 차(茶)는 특히 여름찻잎은
귀중한 농특산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재화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다.

도내 산업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소기업에 전남산 유기농 녹차 추출
물의 유용성분에 대한 과학적 성분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좋은 원료로서
전남 유기농 재배 농가에서 구입해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수도권 지역의
유기농 전문화장품 업체인 ㈜에코먼트나, 유기농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인
㈜루바마바이오텍 등에서 지속적인 찻잎 원료 수급을 통해 차 소비를
확대하여 차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전남도
산림휴양과장
박형호전남도
산림휴양과
주무관
안승욱

30년 숙원 구례 천은사 입장료 폐지



적극 브리핑

배경 | 천은사를 가지 않는 여행객에게도 천은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전국적인 민원 발생

내용 | 관계기관과 사찰이 함께 '천은사 입장료 폐지와 지리산 권역 관광활성화 지원' 협업 추진

효과 | 지리산 탐방객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권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 지리산 천은사 지날 때
입장료 안 내도 됩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은 그 광활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며 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간다고 한다. 그러나 지리산 천은사를 찾는 탐방객들은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했다. '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 천은사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인 민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30년 동안 묵혀 온 일, 해답은 바로 '역지사지'였다. '18년 10월부터 '19년 4월 까지 전남도, 국립공원, 한국농어촌공사, 천은사 등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입장료 폐지에 성공했다. 천은사 입장료 폐지는 지리산 탐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상생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은
'천은사 입장에서
생각하기'였다.

구례 천은사는 '87년부터 성심제 길목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지방도 861호선 길목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에게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일명 '산적 통행세'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한해 1,000여 건 이상의 민원과 항의가 이어졌으며, 탐방객들이 직접 천은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17. 10. ~ '19. 1.) 민원 접수 : 23건, 619명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기관과 담당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기에 처음에는 매우 난감했다. 그러던 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개방된다면, 이후 사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천은사 주지스님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 천은사가 자력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모색하게 됐다.



구례 천은사 매표소

8개 관계기관
지속적 소통과 협의로
30년 숙원 해결

'18년 10월부터 '19년 4월까지 전남도, 국립공원, 한국농어촌공사,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수차례 실무회의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천은사 민원을 해소하면서 입장료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다.

입장료 1인(1,600원) 징수 시 발생하는 민원다툼보다 사찰 내 찻집을 운영하여 차(4,000원/잔)를 판매했을 때 2.5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사찰음식(8,000원/인) 및 천은사 녹차 판매 등을 통한 대체 수익방안에 대한 경영방안을 제시하여 사찰을 적극적으로 설득

* 8개 기관·사찰(전남도, 환경부, 문화재청,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화엄사, 천은사)

또한, 천은사 주변 수변데크시설 도입 등 지리산 탐방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사업을 발굴했다.



8개 관계기관의 적극적 소통과 협업으로 기본 합의안을 도출한 후, '19년 4월 29일 전남도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사찰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천은사 입장료 폐지와 지리산 권역 관광활성화 지원'을 담은 천은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시에 입장료를 폐지했다.

관계기관별 업무협약 주요 내용			
전남도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 지원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도로 매입	환경부	탐방로, 데크시설 등 국고지원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 및 관광자원화 지원	구례군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국립공원	천은사 탐방로 개선 및 매표소 철거	농어촌공사	천은제 주변 토지사용 및 인허가
화엄사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및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각(7.6km)		

천은사 입장료 폐지를 통한 전남 관광 활성화

구례 천은사 입장료 폐지는 지리산 탐방객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협력과 상생하는 '상생모델'로 평가되며 향후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전남도
해양정책팀장
강 하 춘



전남도
섬해양정책과
주무관
김 형 군

지역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배경 | 매립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유수면 불법 매립공사 (주차장 조성) 시행

내용 | 관계부처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원상회복 의무면제 및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효과 | 장흥 노력항 개발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려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 추진, 투자유치 촉진

매립면허 실효 후 조성된 매립지에 부과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로 이끌어 어촌정주어항 개발 여건 마련

장흥군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노력항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의 매립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유수면 불법 매립 공사(주차장 조성, 2,528㎡)를 시행했다. 이후에 노력항 방파제 및 물양장 6,793㎡를 추가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협의 중 매립공사가 완료된 주차장이 매립면허 실효로 불법매립지가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불법으로 매립된 주차장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상회복을 하려면 손해가 막심할 것이 분명했다. 주변 환경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공유수면 매립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과감히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추진했다.



매립지
의무면제 과정에서
어려운 점?

이미 '11년 장흥군에서는 여객선 취항 일자를 맞추기 위해 노력항의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여 단체장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노력항 내에서 불법 매립을 반복한 전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여론의 시선은 따가웠고, 해양수산부도 장흥군의 불법 행위에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5년부터 '17년까지 이뤄진 노력항 주차장 불법매립지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여론을 떠나 매립면허 실효 이후 이뤄진 주차장 매립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상위계획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해제되었다는 의견을 내놔다. 만약 기본계획 해제로 해석될 경우 불법 매립지뿐만 아니라, 장흥군에서 추진 예정인 노력항의 추가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민과 장흥군이 입을 피해가 막심했다. 우선 주차장 불법매립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당시 인사이동으로 인한 장흥군 담당자의 법령 숙지 미숙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노력항 개발을 위해 관련사항 검토 중 늦게나마 인지하게 되었으며,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어필했다. 법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와 끊임없이 협의했다.

불법매립지의 원상회복 등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력항 정주 여항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했으나, 우리 도의 노력으로 4년 이상 방치된 장흥군 노력항의 공유수면 매립 문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 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장흥군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노력항의 여촌뉴딜300 사업과 투자유치 촉진 연계(부산지역 2개 고등어선망 어업단의 선별장 사용 MOU 체결)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의무면제로
노력항 개발에
미치는 효과?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 부문

대상



나주시
안전재난과장
우 홍 민



나주시
안전재난과
주무관
윤 동 현

인접 공사, 동시 발주로
예산절감 및 통행불편 최소화



적극브리핑

배경 | 나주천의 생태계 회복 및 홍수 예방을 위한 2개 부처, 3개 사업 통합 발주(762억 원) 필요

내용 | 시공사 간 공사협업, 관계부처 사전협의, 감사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통합발주 추진

효과 | 항구적 하천 정비 기반 마련과 함께 공사비 절감 및 공사 기간 단축

동일 하천 내에 2개 부처 3개 사업 확정

나주천은 길이도 길지 않고(4km), 폭도 좁지만(20~40m) 제방 도로, 하수관, 차집관로 등 다양한 생활시설이 묻혀있는 중요한 하천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이자 생활터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나주천의 생태계와 범람을 막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태계 회복과 홍수예방을 위해 '18년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277억 원)' 공모에 선정됐지만, 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하천 내 묻혀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할 방법 또한 환경부 공모사업이었다. '공공하수처리장유입 차집관로정비공사'라는 공모사업을 찾아내 도전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차집관로를 도로하부로 이동할 방법이 마련됐다. 게다가 '풍수해생물관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 도전도 성공하여 나주천에 하류부 배수펌프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나주천 복원 및 정비 관련 3개 사업 계획도



통합발주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반복되는 굴착공사
시기조절을 통해
같이 발주하는 것은
어떨까?

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주천 개량 공사에는 주민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발상도 바꿀 필요가 있었다. 할 수 있는 여러 공사를 각각 발주할 경우, 업무의 구분과 예산 관리는 편리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깊어질 것이 뻔했고, 하나의 공사라도 표류되면 총 공사기간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초안 철거와 복구는 차집관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각각 반복되는 공사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았다.

이를 해소하고자 나주시는 3개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3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사와 담당자 간 논의로 방법을 찾았다. 그 이후 사업 주관 부처인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통합 가능여부를 자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전남도 감사관실의 사전컨설팅 제도 역시 큰 도움이 됐다.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추진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 주민설명회 개최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은 것은 사업 추진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었다.

사업명	부처명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합계	국비	지방비		
계		762	381	381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278	139	139	하천정비(L=6.88km) • 축제 및 보축 L=1,82km • 수질정화습지, 서식처 복원	'18~'21
나주천 풍수해생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310	155	155	펌프장, 유수지 증설 • 교량 13개소	'19~'22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유입차집관로 정비공사(2단계)	환경부 (생활하수과)	174	87	87	차집관로 정비(나주천 구간) L=3.04km	'21~'23

발상의 변화로
사업 추진방법의
대안을 찾다

하천공사는 재해를 예방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하천사업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기 위해 통합발주 방법은 당연했다.

나주천 3개 사업 통합발주로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타 지자체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의견을 나누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동료직원들, 그리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전남도 감사관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 부문

최우수상



고흥군
세정팀장
정혜경



고흥군
재무과
주무관
정종훈

지방세(취득) 신고없이 SMART하게 과세하고 국민에게 가산세 부담 덜어주Go!



작극 브리핑

배경 | 부동산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사례 빈번

내용 | 직권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목변경 승인 시 취득세 안내고지서를 동시에 부과·발송

효과 | 부동산 지목변경 시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민원인 가산세 제로화

과세절차 개선한 스마트 직권과세, 가산세 No!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방법 개선

부동산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다. 그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면 납부자는 과세 불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함과 과세불만을 해소하고자 과세 절차 개선방향을 연구하게 됐다.

그 결과 과세절차를 개선하여 직권과세제도를 도입, 지목변경 승인과 지가 산정 자료를 소관부서에서 받아 납세자의 신고 없이 직권과세하고, 취득세 안내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의 목표는 민원인 가산세 제로화다.

지목변경·시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 발견!

※ 토지취득세 납부대상 등 지목변경에 등재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신청 시 민원인 기관 재방문의 불편함과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가치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로 인해 민원인은 취득세 신고를 위해 재차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를 몰라 납부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 불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례를 경험하면서 과세절차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고지서를 받은 민원인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땅을 내가 지목변경하는데, 무슨 세금을 내냐? 그럼, 안내는 독바로 해줬냐? 가산세까지 매겨? 당신이면 내겠어? 탁상행정이나 하지 말고 독바로 일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해답을 찾게 됐고, 그건 바로 신고절차를 생략하여 부서간 내부협업을 통한 직권과세를 통한 가산세를 제로화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법령해석 및 부서간 협업으로 민원인과의 고질적 갈등을 해결하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적부서로부터 2~3일 후에 결과통보를 받게 된다. 이후 민원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려 재차 방문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지가부서와의 내부 협의를 통해 취득세를 직권 과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과의 고질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직권과세 시행! 민원인 방문 절차 생략

[산정된 취득세를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고안]

과세절차 개선 흐름도



1단계


민원인의 신고절차 생략을 위한 부서간의 협업 추진

지목 변경 승인과 지가 산정 자료를 해당부서로부터 미리 받아 납세자의 신고 없이도 취득세 산정

2단계

취득세 안내 및 고지서 동시에 발송하는 시스템 구축

3가지 큰 어려움! 적극적인 법령해석 및 행정추진으로 극복하다!

추진상의 어려움	문제점 해결방안
법 조항 원칙의 어려움 민원인이 방문 신고를 해야 과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원칙 (지방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3조)	장애요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법제처 유권해석	해 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중 “구비서류로 취득세액을 확정시킬 수 있을 경우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사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법적 문제 해결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지방세감면 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련 법령 지방세특별재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현실적 홍보의 어려움

건축실계사무소 등에서 대행 신고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다수 발생



장애요인

관내 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체에서 민원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대리인의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홍보 효과 저조

해 결

관내 대행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신고 안내를 독려하고,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활동 강화

부서간 협업의 어려움

부서간 협업이 중요한 업무로 담당자 변경 시, 업무전행 차질



장애요인

지가산정 업무가 단시간에 도출해 낼 수 없는 정교하고 복잡한 검토 단계를 거쳐 가격산정이 되는 업무특성상 지가산정 건수가 많을수록 본연의 업무추진 시 업무가 과중되어 협업 거부감이 팽배

해 결

관련부서간 민·관 실무협의 진행 및 부서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편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군민의 취득세 가산세액 및 체납률 획기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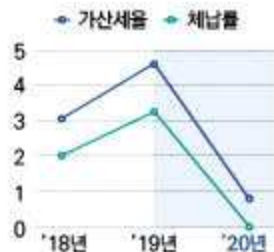
취득세 직권과세 도입 전에는 '19년 가산세액 11,446천 원, 체납률은 4.44%였으나, '20년 도입 이후 가산세액 73천 원, 체납률은 0.66%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또한 민원인의 행정기관 재방문에 대한 불편 함도 직권과세로 해소됐다.

행정서비스 도입 전

2019년	
가산세액	11,446천 원
가산세율	3.41%
체납율	4.44%

행정서비스 도입 후

2020년	
가산세액	73천 원
가산세율	0.09%
체납율	0.66%



앞으로도 주택!
그리고 적용분야를
확대해 줄 수 없나요?

앞으로 취득세 직권과세를 통한 군민 권익 향상 증진을 위해 '21년도 건축물의 신·증축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및 적용할 예정이며, 취득세뿐만 아니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보성군
홍보계장
이진숙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박종연

보성군 홍보가 기가 막혀~!



-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움츠러든 주민 일상과 위기에 빠진 지역농가·상권의 활기 회복 필요
- 내용** | 지역민에게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군 대표 유튜브(BS특공대) 콘텐츠 제작·배포
- 효과** | 군 홍보팀에서 직접 제작하여 홍보비 절감, 지역 특산물 매출 증대 등 홍보성과 창출

홍보팀 직접 유튜브·캐릭터 제작,
홍보비 ZERO 효과는 10배!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일상,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지역농가,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홍보방법이 필요했다. 할 수 있는게 뭘까?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온라인 활동이 많아진 것에 주목했다.

쉽고 재미있게 군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공무원의 B급 감성을 담은 동영상 제작하고 군민·공무원 SNS홍보단을 운영했다. 덤으로 댓글에서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계기도 됐다.



보성군 대표 유튜브(BS 특공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 홍보, 어떻게 해야할까?

상황에 맞는 최선의 홍보방안을 찾아라!

오프라인 홍보는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구사하지 않고서는 그저 소리없이 묻힐 뿐이다. 지자체 홍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예를 들면 농특산품의 성분이나 효능, 지역 특색을 알렸던 물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을 자극하는 영상이나 생산과정 공개 등 좀 더 친밀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글로 써진 홍보물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영상을 통해 쉽게 전달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원한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튜브」다.

“우선 못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홍보영상에서 중점을 ‘B급 감성’으로 잡았다. “딱딱한 영상보다는 재미있게, 그럴 것 같지 않은 공무원이 먼저 망가져보자. 상황에 따라 몸개그도 좀 하고 말투도 공무원같지 않은 말투로 접근해보자.” 등 개그요소를 더한 보성군의 홍보영상은 홍보 계정과 홍보계 직원을 중심으로 BS특공대를 결성하여 등장시킴으로써 파격적인 콘텐츠형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성군은 '19년부터 공무원 SNS홍보단을 운영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공무원의 특성을 살려 본인 알고 있는 업무와 정책 홍보로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친 것과 동시에 토박이로 쌓아온 알짜배기 정보를 공유해 현지인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홍보전략을 내세웠다.

부족한 홍보예산의 한계를 넘어 직원들이 홍보맨이 돼 군정 홍보에 참여한다는 아이디어는 업무간 경계를 허물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행정 칸막이를 해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우리는 보성만의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성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녹차, 고막, 키위를 의인화해 BS삼총사를 만들어냈다. 다른 지자체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자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캐릭터를 만드는 것과 달리 단돈 300만 원으로 디자인하여 가격이 착한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탄생된 캐릭터 BS삼총사는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행사장에도 방문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3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성군 공식 유튜브 파급력 증대 및 특산물 판매 증진

전남 지자체 중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춘 홍보전략 추진 선두주자로 도내 유튜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20년 1월 이후 구독자 253명에서 현재 3,400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게시물 파급력이 10배 이상 증대했다.

또한 보성군 유튜브에서 지역 상품을 활용한 영상을 찍으면서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몰'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9월 BS삼총사가 유튜브를 통해 첫 선을 보인 이후 9월 매출이 8월 매출에 비해 6천만 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저예산으로 직원이 직접 제작한 캐릭터를 전국단위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출품함으로써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대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전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성격을 창출했다.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 부문

우수상



목포시
녹지팀장
최 양 선



목포시
공원녹지과
주무관
장 복 천

남한 항구가 달라졌다! 남항 유희부지, 사계절 꽃정원 대변신



배경 | 쓰레기가 가득했던 목포 남항 유희부지 내 황폐하던 토지 정비 필요
내용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토지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5천여 명의 희망 일자리 인력을 투입하여 저예산으로 꽃정원 조성
효과 | 코로나19 속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사계절 꽃정원으로 대변신, 지역민에게 볼거리 제공

척박한 매립지 땅, 쓰레기와 돌발의 3만㎡를 일구어
꽃씨를 뿌리는 것이 무모한 일이었지만,
5,430명의 희망일자리 인력을 투입하여
코로나19속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사계절 꽃정원으로 대변신하여 가장 핫한 명소로 조성

쓸쓸하던 목포 남항 유희부지가 달라졌다. 황폐하던 토지는 꽃으로 물든 정원이 되었다. 꽃정원은 주말 3천여 명, 평일 1천여 명의 방문객과 언론매체 70여 회, SNS 등에 3천 회 이상의 조회를 기록하며 가장 핫한 가을 명소가 됐다. 환경정비를 최우선에 두고 시작한 사업이 꽃정원으로 대변신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고 있다.

함께 힘을 보태준 목포해양수산청에 감사드린다.

처음 시작은 힘들어도
함께 고민하여
만들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업기관인 해수청과 5차례 협업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취지를 전달하여 유희부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냈다.

구분	목포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5. 18) 민원처리 방안 논의 2차(5. 27) 관련부서 현장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6. 4) 협업 사업 계획 구축
1단계	공원녹지과 토지사용 요청	항만물류과 토지 무상 사용
2단계	공원녹지과 토지 정비 및 꽃씨 파종 수도과 관수용 수도시설 공급 일자리청년정책과 희망일자리 지원 도시계획과 야간조명 설치 도시문화재과 진입로 환경정비	항만물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단 투기 및 경작 단속 작업 컨테이너 시설 지원 관광선 부두 보안구역 지정
3단계	공원녹지과 꽃정원 조성 관리	항만물류과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미확보로 어려움은 일자리사업 등 관련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확보했다.

남항이
핫한 명소로
바뀌게 될 줄은
몰랐다

“목포의 아름다운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목포시민, 목포시 및 해수청이 함께하여 힐링 1번지로 만들어냈다.



무단경작 및 쓰레기(조성 전)



가을 꽃정원(조성 후)



힐링하는 시민들(조성 후)

목포 남항 유희부지 꽃정원



시민 모두가 행복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계절 꽃정원 조성으로 "낭만 항구 목포" 이미지를 제고했다. 대규모 꽃정원 조성과 유지관리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남향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남향 불꽃 정원 조성사업

◆ 조성 Concept

- ◆ 계획 대상지의 면적이 넓어 일년생 종자대중으로 자람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
- ◆ 다양한 일년생 종자대중으로 관상적 및 주민들에게 여러가지의 감상 포인트를 제공

◆ Master Plan



목포시 공원녹지과

목포 남향 불꽃 정원 조성도



목포시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 부문

우수상



완도군
법무팀장
고수영



완도군
총무과 주무관
김남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해상 확대, 완도군 전국최초 시범 운영



적극브리핑

배경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업종에 어촌이 제외되어, 어촌 일손 부족 현상 지속

내용 | 관계부처에 끝없는 건의를 통해 「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완도군에서 전국 최초 시범 운영

효과 | 어촌 일손 부족 현상 해소 및 어업소득 증대 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육지는 되는데 바다는 왜 안될까?"

농촌만큼이나 어촌도 일손이 부족하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어촌으로는 오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이 육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은 허용 업종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육지와 바다 모두 가능하도록 규제혁신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촌 프로그램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다시마 최대 생산지로 유명한 원도군 금일읍은 '10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서 매년 다시마 수확철에는 약 3천 명 분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어촌 일손 문제는 비단 원도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15년부터 시행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어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분야가 해조류·어패류 가공생산, 멸치 건조 등 육상작업에 한정되어 허용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는 양식어업 및 연근해 어업 등 육·해상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업종을 해상작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회신결과는 불가 통보만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다. 원도군은 규제혁신 차원에서 문제의 답을 찾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고용허가제

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 허가제도
추진부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도입주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고용주, 접수대행기관(수협)
도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U 외국 지자체 주민 관내 결혼 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송출국 16개국
허용업종 (어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가공 - 해조류·어패류 가공·생산, 멸치 건조 - 육상 작업에 한하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어업 연근해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알염 채취업 - 육·해상 모두 가능
채류기간	단기 취업(3개월, 1회 연장)	장기 취업(3년, 1년 10개월 연장)

접근방법의 변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다

'17년 6월, 원도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처음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18년 1월 베트남과 근로자 유치 MOU를 체결하였고, '18년 2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어가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었다.

'19년 5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업종을 해상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관련 부처는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함이 타당하다며 '부적합 통보'를 보내왔다. 이에 '19년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같이 해상작업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19년 11월, 관계기관들의 현지실사와 어업인과의 대화가 시작됐고, 그 결과 법무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분야 해상작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년 1월,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개정했고, 원도군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국 최초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2월, 원도군에 전국 최초로 51여가 9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오게 됐다.

법무부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어업분야」 지침 개정 ('20. 01. 02.)

	허용업종	적용 수산물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신설)	㉢ 전남 원도군 지역의 다시마, 미역, 톳 양식 ※ '20년 원도군 지역만 시범 운영(해수부 의견 반영)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괘다기 건조, 굴 까기

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 및 계획

법무부의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지침 개정으로 다시마·미역·톳 양식 등 허용업종이 확대되어 해상작업의 일손 부족이 해소되어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19년 원도군 건다시마 총 위판은 1,129여가 4,565톤에 214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해상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직접 효과는 51여가 95명 206톤의 건다시마를 생산하여 총 9억 6천 6백만 원의 어업소득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원도군은 '20년 4월 필리핀 페르난다군과 MOU를 체결하여 6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마치고 '21년까지 시범지역으로 연장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어촌 일손부족 해결 등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년 원도군 건다시마 총 위판 현황



허용대상을 해상분야까지 확대 했을 경우 직접 효과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공사 부문

우수상



전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박영귀



전남개발공사
차장
김광재

온라인 생활SOC 전자도서관 개관을 통해 섬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지혜를 전달합니다.



적극 브리핑

배경 섬에 사는 초등학생이 육지 도서관에 가려면 배와 버스 등을 타고 왕복 6시간 소요

내용 섬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수업과 연계한 아동전용 전자도서관 서비스 지원

효과 공공도서관이 없는 섬 지역 학생에게 상시 독서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 학업 향상 가능

저는 섬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인데 책 빌리러 도서관에 가려면
배타고 1시간, 버스타고 2시간, 왕복 6시간이 걸려요

섬 지역처럼 도서관이 없는 곳의 지역민들을 위해 전자도서관이란 정책이 있다. 그러나 등록절차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섬 지역 초등학생들이 책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우선 전남 지역 학생들의 독서환경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섬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독서수업과 연계한 아동전용 전자도서관을 개관했다. 신안 '지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신안지역 9개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21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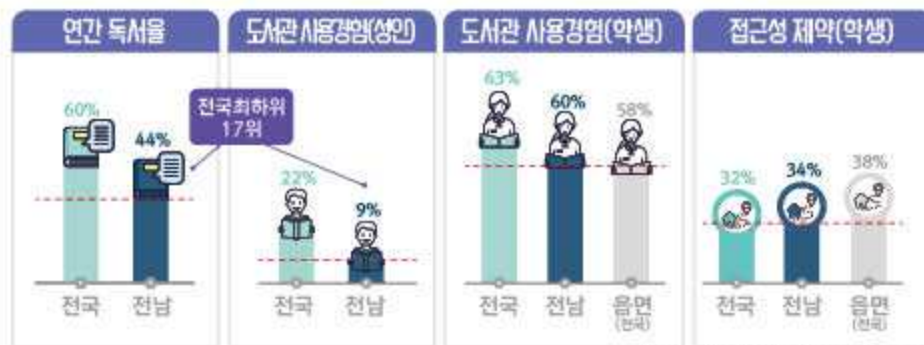
전자도서관 운영 업무협약식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왜 전자도서관이 필요한 것인가?

공공도서관은 생활SOC로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전남에 있는 2천여 개의 섬마다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 대부분 공공도서관은 읍·단위에만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딴 섬 지역 학생은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출처: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429개 초등학교 중 28개 학교에만 전자도서관이 있고, 신안군, 구례군, 영암군, 고흥군 초등학교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전라남도 지자체별 학교 전자도서관 구축현황



출처: www.okburi.net

전자도서관은 도내 66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직접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초등학생 전용 전자도서관은 없는 실정이다.

섬 지역 학생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책을!

'19년 6월 전남개발공사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에서는 하드웨어 관점으로만 생각해 왔던 생활SOC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공공도서관 이용할 수 없는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전남이 가진 지리적 한계가 독서율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컸고, 섬 지역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섬마다 도서관이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건물 관점에서 벗어나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섬 지역 어디든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자유롭게 도서를 대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열악한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19년 10월부터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 지도초등학교, 교보문고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우선 고학년 대상으로 시범학교 운영했고, 무안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선호 도서, 전자도서관 운영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 전자책 182권을 선정했다.

전자도서관 플랫폼은 공공도서관에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은 차별화가 필요했다. 섬 지역 학생들이 찾아와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공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아동전용 전자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교육청에서 추천한 '지도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마침내 '19년 11월 '전남개발공사 전자도서관'을 오픈했다. 전자도서관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를 찾아가 사용방법 설명회 개최, 접속 QR 코드 및 배너 등을 배포했다. 또한 가정 내 독서활동 연계를 위해 2차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20년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연기되자 지도초등학교 전교생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5월에는 전남개발공사와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 전 지역으로 사용자 대상을 넓혔고, 7월에는 확대운영에 따른 아동도서를 추가 구입하여 375권을 구비했다. 8월에는 신안 전 지역 9개 초등학교 267명이 가입했다.

랜선 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도전

전남개발공사 전자도서관은 공공-민간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전자도서관 개념을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19년 11월 개관 후 현재까지 980권을 대출했으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매우 만족, 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해 큰 성과를 거뒀음을 확인했다. '20년 코로나19로 공공도서관 휴관이 길어지자 도서대출 수요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전남개발공사 전자도서관은 더 나아가 독서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층을 찾아 나설 것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전자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공공도서관 내 전자도서관이 있는데 왜 불필요한 일을 하는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소비자가 오른손잡이일 거라는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0%정도는 왼손잡이다.

소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니치 마케팅과 적극 행정을 조명한 전남개발공사 전자도서관(공사 직원들은 J-Book이라 부름)은 포용성 강화라는 혁신적 가치를 가지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초등학생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해와 희망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다.



전남도
외자유치
담당
조 형 군



전남도
투자유치과
주무관
박 경 애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구축 나조원 민간투자프로젝트 유치 성공!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 유치 필요

내용 | 기업의 투자 애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건의활동 등 기업맞춤형 현장 행정지원 추진

효과 | LNG 발전소 2개소, 2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국내 최초 민간투자로 건설되는 상업용 LNG 거래 중심지, 한국형 그린뉴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국내 최초 상업용 민간투자(총 4조 원)사업이다. 전라남도의 획기적인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20. 5월에 1.3조 원 규모(1단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 10월에 착공됐다.

위치/면적 | 전남 여수시 모도 / 약 87.4만㎡(25만py)

투자규모 | 4조 원(1.3조 원/1단계),

탱크 20만㎥×12기(4기/1단계), 접안부두

기간 | '20년 ~ '23년(*1단계 후 단계별 확장)

연관산업 | LNG병커링, 냉열이용산업, 데이터센터, LNG·수소연료전지발전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LNG 허브 터미널 건설 유치가 성공했다. 아울러 냉열이용산업, 데이터센터, LNG 선물거래소 등 연관 산업을 추가 유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 모도 LNG 터미널 건설(1단계) 경제효과

직접고용 | 250명(시설운영 150, 유지보수 등 100)

세원확보 | 지방세 41억 원/년(재산세 21, 법인지방소득세 20)

유발효과 | 고용유발 8,000명, 생산유발 5조 7,960억 원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대형 민간투자프로젝트
유치로 이겨내자는
생각이 시작!

국내기업 H사는 여수 모도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화석연료를 청정 연료로 전환하는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구축을 구상하고, 1단계로 '20~'23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LNG탱크 4기를 건설하는 공사계획 승인 신청('19. 12.)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나,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LNG저장탱크 미확보시 해외공급사의 반출입업 신고 규정이 없고,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이용제한에 따른 공사계획 보완을 요구('20. 1.)해 사업추진이 곤란해졌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대형 프로젝트 유치가 필요했고 기업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LNG 인수기지 건설 인허가 절차 내용



발로 뛰는
획기적인 기업맞춤형
현장 행정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다

전남도는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관계 기관 설득 등 발로 뛰는 기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터미널 공사계획이 승인('20. 3. 산업부)됐고, 기업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가스공사와 투자기업 간 가스 배관망 이용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 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산업부,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정부 「코로나19 조기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20. 2.)」에 여수모도 LNG터미널이 투자 애로 해소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 승인('20. 3.)을 받아냈다.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외공급사의 반출입 신고 규정 미비에 따른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 자문 및 관련부처의 법령 적극 해석 건의와 설득을 통해 정부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 6.)」에 반출입용 LNG 저장 시설 증설을 투자애로 해소사업으로 반영해 공사 전 조건부 반출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사업장 보세구역 지정('20. 10. 여수세관)을 통해 해결하여 해외반출입업 신고가 수리('20. 11.)됐다.

또한, 기업의 공사계획 신청은 수요처 확보에 기반하고 있으나, 국내 최초 민간 상업용 터미널 건설에 따른 업계의 불확실성 우려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국내외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난방공사와 5개 발전 자회사를 LNG터미널 이용 등 투자협약에 참여시켜 LNG발전소 2개소,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는 등 수요처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성공의 필수요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현장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관 산업 유치 등 대규모 투자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며, 투자자로 하여금 인근 주민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주문했다. 그 결과 산업부의 공사계획 승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 동의 성명과 여수시의회의 사업추진 지지 성명 발표('19. 3.)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여수 모도에 짓는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조감도

「동북아 LNG Hub 터미널」을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의 성공모델로....

앞으로 전남도는 한국형 그린뉴딜 「동북아 LNG Hub 터미널」 플랫폼으로 다양한 연관사업 유치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NG 연관산업 투자유치 추진상황

사업명	세부 사업	투자비(억원)	고용유발(명)	생산유발(억원)	비고
LNG 터미널	LNG 터미널 사업	40,000	36,800	79,880	LNG 병커링, Reloading 등
	LNG ISO탱크 사업	20,000	18,400	39,940	탱크제작 포함
LNG 발전사업	LNG발전소 건설	33,000	30,360	65,901	3GW기준
	연료전지(200MW)	13,000	11,960	25,961	-
LNG 관련사업	수소 연관 사업	1,500	1,380	2,996	-
	LNG 운반선 사업 (소형 LNG 운반선, 보수 등 포함)	6,500	5,980	12,981	소형 3척기준
냉열이용 사업	공기분리공장, 냉동창고 등	5,000	4,600	9,985	-
	액화탄소, 의료, 재활용 사업 등	3,500	3,220	6,990	-
LNG 거래소	금융거래 및 운영센터 등	5,000	4,600	9,985	거래금액 120~150조 원/년
	데이터 센터 건설	5,400	4,968	10,784	네이버 세종 데이터 센터
합계		13조 2,900억 원	12만 2,268명	26조 5,401억 원	
LNG 직도입 · 공급으로 여수산단 입주기업 원가절감		2조 8,000억 원	-	-	10년간 절감효과

「농업인·학생·학부모를 춤추게 하는 행복상자」 작은 상자에 담긴 학생의 즐거움과 농업인의 판로



적극 브리핑

배경 | 코로나19로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최대 45% 정도의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내용 | 농촌융복합 체험상품(쿠키 만들기 등)을 상자로 만들어 학교 및 가정에 배송
효과 | 6차산업 인증경영체에 소득증대 효과 및 학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 제공

“코로나19”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시기에 체험객 방문으로 먹고 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인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지자체와 농촌융복합산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쿠키집 체험박스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
강 종 철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팀장
최 광 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
주무관
박 진 아

코로나19 위기,
비대면 시대에 맞게
극복하자!

‘20년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매출액을 확인해 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2차 가공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주 소득원이 체험인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한 매출액이 45%나 되었다.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하러 올 수 없다면, 비대면 시대에 맞게 체험상품을 체험상자에 담아 학생 가정으로 보낼 수 있으면 어떨까?’

전남 6차산업 센터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중 번뜩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였다. 학생 가정으로 보내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구입하여 학생 가정에 보내지? 계속되는 고민과 풀리지 않은 문제점이 점점 늘어갔다.

체험박스 구성



어항 만들기



피자 만들기



한과 만들기



꽃차 만들기

우리 농업인과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구해주세요!

6월 말 교육청 체험학습 관계자를 만나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체험박스를 만들 마땅한 예산이 없었던 것이다. 마침, 교육청도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지 못해 각 초등학교에 배정된 체험학습 예산이 불용될 위기에 놓인 사실을 알게 됐다. 기나긴 논의 끝에 농업인과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청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남도와 교육청,
전남6차산업 센터” 가
힘을 합치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여러차례에 걸쳐 기관 간 회의를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전달할 체험상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품을 보내줄 수는 없었다. 전남에서 활동 중인 체험학습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모든 상품을 일일이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사용해봤다. 불을 사용하는 것, 보조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포장에 영망인 것, 아이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것 등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난이도에 따라 22개의 체험박스를 만들어냈다.

체험박스를 사용하려고 보니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비대면'체험 이다 보니, 강연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만드는 방법을 적어 보내는 것은 설명에 한계가 있었다.

【체험프로그램 현황】 18개 6차산업 경영체(22개 체험박스)

시군	경영체명	체험프로그램	시군	경영체명	체험프로그램	시군	경영체명	체험프로그램
순천	모후실에서 만난차	꽃차만들기	담양	파망하우스	쿠키집만들기	영암	지원목장	아이스크림 만들기
순천	효행(주)	어항식물키우기	담양	다화림	압화만들기	영암	지원목장	피자만들기
순천	순천연패실	매실비누만들기	담양	안복자한과	한과만들기	무안	들새암 울타리	고구마초코볼 만들기
나주	명하햇곡	손수건염색	구례	지리산 피아골	수제고추장 만들기	영광	미르목장	수제치즈 만들기
나주	힐링가든휴	반려식물키우기 (테라리움)	구례	반덕돌	공돌이키우기	장성	백련동	구슬팔찌 만들기
광양	삼무루지 새박삼농원	새박인심 화분 만들기	강진	민음영농 법인	반려식물 키우기(바섯)	장성	백련동	반려식물 키우기(편백)
담양	파망하우스	우리밀케이크	해남	해남에다녀 왔습니다	고추장 소떡소떡	장성	삼재협동조합	모종관찰키트

'그래,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자!'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농업인, 만드는 방법,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농산물 소개까지 한 개의 화면에 담았다. 영상으로 전달하니, 집중도도 높아지고 마치 현장 체험학습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고요? 그럼 전남의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 주문해 보면 어떨까요?"

홍스를 체험박스 참여 업체의 남도장터 입점을 통해 결제도 간편하게 하면서, 남도장터에서 판매되는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남도장터에 입점된 홍스 체험박스



'20. 9. 3. 나주초



쿠키집 만들기

'20. 9. 9. 장성 서삼초



피자 만들기

'20. 9. 9. 장성 서삼초



팔찌 만들기

'20. 9. 15. 여수 가정집



피자 만들기

'20. 9. 28. 광양 마동초



도마 만들기

'20. 10. 30. 나주 문평초



한과 만들기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이들은 수업 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고, 학교에서는 체험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동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주니, 선생님들의 일손도 덜 수 있었다. 6차산업 인증경영체(담양군 파밍하우스)는 “코로나 여파로 타격이 커서 업종 변경까지 고민했었는데 홈스를 체험박스 덕분에 불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체험박스 신청이 끝났나요? 다시 신청할 수 없을까요.” 이미 1차에 체험상자로 활동을 마친 학교와 주변에서 소문을 들은 학교에서도 추가 신청 요청이 들어왔다. 그렇게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2차 접수를 시작했다. 이미 한차례 추진 했던터라 1차 때 실시한 만족도 조사,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더 다듬고 보완·개선할 수 있었다.

코로나 종식 후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21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위기 극복 대책으로 시작된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가 코로나 종식 후에도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초등학생 외에도 유치부, 중학생, 더불어 양로원 등 노인 지원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연담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6차산업 인증경영체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박스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담 사례



학생

- 코로나로 체험학습을 못가게 되어 아쉬웠으나, 친구들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즐거웠다.
- 완성된 제품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 쿠키집을 만들어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고, 다음에는 쿠키집으로 큰 도시를 만들고 싶다.



6차산업 인증경영체(영암군 지원목적)

- '20. 1월에 영암군 소재 영아원 아이들을 초대하여 무료체험을 했었다. 이후 몇 개의 체험 예약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방문 체험객의 예약이 모두 취소되었고, 가을학기마저 모두 취소되어 많이 힘들었다. 6차산업을 병행하는 경영체라 소득을 요구르트, 치즈 등 가공품 생산과 판매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그마저도 체험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체험박스는 초·중·고등학교 가정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홍보 효과도 있어 정말 좋다.



학교(선생님)

- 학생들이 직접 체험학습 재료를 모두 만들기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좋았다. 또한, (선생님이) 따로 재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수업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 조립방법에 대해 동영상을 잘 만들어주어, 그걸 보고 학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어 수업 만족도가 높았다.
- 체험학습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앞으로 학생들과 꾸준히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남도
토지관리과장
정 애 숙



전남도
토지관리과
주무관
심 재 훈

전국최초 부동산특조법 보증료 협약으로 도민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준다



적극 브리핑

배경 법 시행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시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보수료 지불의 부담 존재
내용 전남도와 광주전남법무사회 간 보수료 감면협약을 통한 보수료 인하 추진
효과 자격보증인 보수료를 100만 원 이하로 조정(기존 400만 원 이하), 도민에게 30% 추가 감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지정 의무, 높은 보증료를 전국 최초로 법무사회와 해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으로 보증인 제도가 강화됐지만, 자격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격보증인인 법무사들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남도와 광주전남법무사회」 간에 보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하여 보수료를 1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도민에게는 30% 추가 감면혜택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특조법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일까?

'20. 10. 20.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운용에 필요한 자격
보증인(법무사 등) 보수료는 우리 도 실정과 맞지 않게 결정됐다.

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동일하게 보증료 450만 원으로 결정

전남 10,99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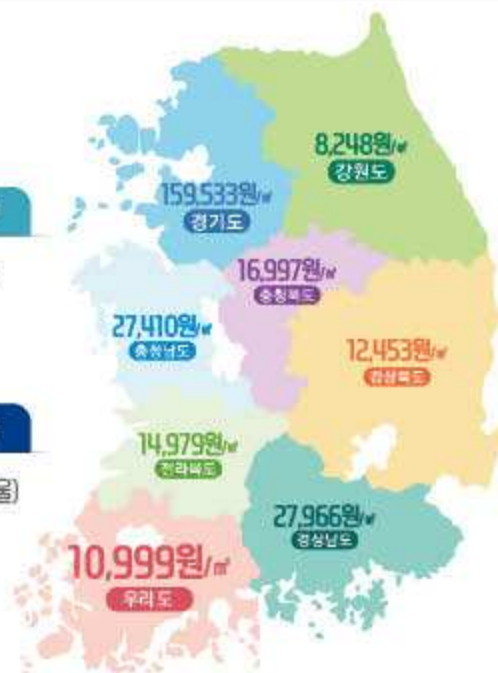
최고 424만 원(여수)

최저 163원(완도)

전국 61,194원/㎡

최고 1억 9900만 원(서울)

최저 146원(강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보증료 감면
협약 체결

불합리하게 정해진 보증료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격
보증인인 광주전남법무사회를 수차례 방문·설득하여 부동산특조법 보증료
감면 협약을 맺게 됐다.

업무협약을 위한 보증료 감면 제안(' 20. 7.),
법무사 이사회 설명회 개최(' 20. 7. 23.)

「전남도--광주·전남법무사회」 업무협약: ' 20. 7. 28.(화), 도지사 접견실

- 자격보증인의 기본보수액 조정 및 30%감액, 등기 수수료 50%감면

* 보수액 조정(450만 원→100만 원), 30% 추가 경감

: 70만 원/건당 ▶ 1건당 380만 원 절감

* 등기수수료 기본 14만원, 50% 경감

: 7만 원/건당 ▶ 1건당 7만 원 절감

- 보증업무에 적극 협력하고, 실권리자 보호 및 구제에 노력

간접한 절차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마지막 기회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여 사군 자격부서에 보증서등 첨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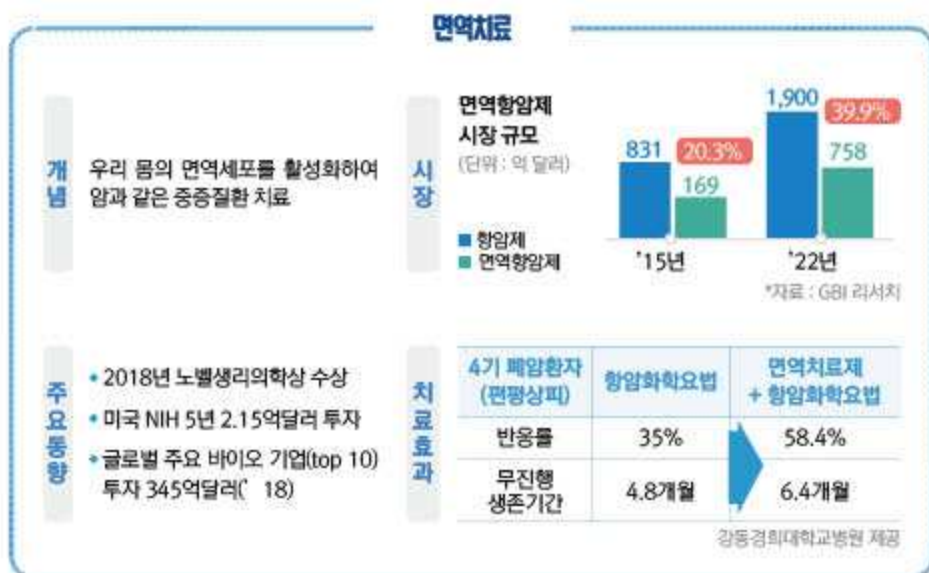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법 기회에 많은 도민들이 등기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함으로써 행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질병,
'암·치매'를 잡아라

최근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나 다름 없다. 하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있다. 바로 암과 치매다. 불치병, 난치병으로 불리는 암,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면역치료'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면역치료는 말기 암에 큰 효과가 있어 "꿈의 항암 치료제"로 불리고 있다.



전국 유일의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전남에 들어서다

전남도는 이같은 면역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17년 국립면역 치료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총 460억 원을 투자해서 화순전남대 병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센터를 완공하고 무균동물실험실 등 첨단 시설과 최신 장비가 들어선다. 명실상부 국내 유일의 면역치료 전문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 첨단 항암면역치료제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사업기간	'20년 ~ '24년(5년간)
위치	화순 백산산업특구 내(화순전남대학교병원)
사업비/규모	460억 원(국비 230, 지방비 230) / 부지 17,000㎡
사업내용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 사업화(원스톱 플랫폼)
주체/주관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라남도, 전남대 의대

면역치료 드림팀!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가,
'전남'에 모였다

'면역치료'의 중요성과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사업에 ▲전남대, ▲GIST, ▲포항공대,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가인 17개 기관·기업,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해 글로벌 면역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대학교·기업·종합병원 등 17개 기관 심의, 참여 확정 → 명실상부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 완료

포항공과대학교

강주과학기술원

삼성서울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헬리움미트

파미셀

165조 원 항암치료제
세계 시장, 전남이 선점!
이제는 비싼
항암치료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천만 원에서 수억이 넘는 비싼 항암 면역 치료비 때문에 매년 수천명의 국내 암 환자분들이 해외로 원정치료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면역치료제 국산화가 가능해진다. 항암면역치료제는 '24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165조 원에 이른다. 면역치료제 관련 30개 기업을 유치하고 1,160여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또한 첨단 바이오산업의 핵심시설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전라남도도 앞으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남 바이오산업 지도를 바꾸고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

블루 이코노미

Blue Economy

전남도가 추진하는 "바이오 메디컬 허브 전남선현"을 위해 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식

생활불편 NO! 언제든 부르면 OK!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적극 브리핑

배경 |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문제(전등교체 등)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내용 | 이웃과 설비업자가 중심이 되어, 민·관 협업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수리·수선 등 생활불편 개선

효과 |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및 민관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배하고 수도 좀 고쳤으면 쓰것는디 우째야 쓰까?

목포시에 거주하는 임OO(76세, 여) 어르신은 폐지를 주워 홀로 생활하고 있다. 어르신의 생활실태를 잘 알고 있는 복지기동대원인 동장은 복지기동대에 주거 개선을 신청했다. 공무원, 이·통장, 주택설비업체 사장 등 복지기동대원들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살펴보니 천장 등 집안 곳곳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심했고, 수도배관이 수년 동안 파손되어 있어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자와 주거개선을 요청했던 동장, 복지기동대원인 주택설비업체 사장님과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어르신댁에 벽지 도배 등의 주거개선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후 복지기동대 협력기관인 시 자활센터 주거개선사업단과 복지기동대원이 방문하여 마당과 집안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배관을 설치하고, 벽지 도배 및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었다. 차상위계층인 어르신은 복지기동대에서 "고장 난 수도도 즉시 수리 해주고 곰팡이가 핀 집을 깨끗하게 고쳐주었다"며 고마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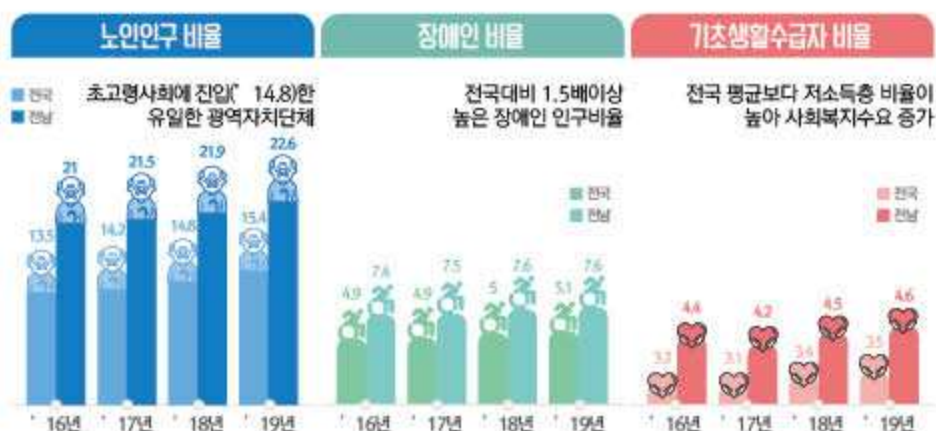
전남도는 '19년 4월부터 '생활불편 NO! 언제든 부르면 OK!'라는 슬로건으로 이처럼 우리 주변 사회취약계층의 전등교체, 전자제품 오작동 수리 등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공무원, 이·통장, 주택설비업체 종사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도내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취약계층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들은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전등교체, 전자제품 오작동 수리 등 단순한 생활불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노인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방문형 돌봄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으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줄 서비스는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소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구축하게 됐다.

〈'18년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례관리 욕구조사' 결과〉
- 경제문제 32%, 일상생활 25%, 건강 21%, 생활환경 11% -



지역주민 관점의 "민관협력 복지안전망 구축"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 총 319개 기동대 2,208명으로 구성됐다. 1개 기동대에는 전기·가스·주택설비 종사자·이·통장, 공무원 등 이웃의 불편함을 가장 잘 알면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주민 10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협동 복지안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전등, 수전, 창틀, 전자제품 오작동 등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수리해 주고,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 제도를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는 생계·의료·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금을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20년도 10월까지 총 4,966가구에 16억 7,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1개 기동대 당 평균 15가구에 출동하여 생활 불편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사회복지과
지역보훈팀장
김승희



사회복지과
주무관
오경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사진

소소하지만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체감형 복지 실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에 지역 주민 참여방식을 도입했다.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때는 복지기동대원과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지원대상이 아닐지라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가급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단위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자원과 연계망을 확장할 것이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노인세대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소하지만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앞장서도록 하겠다.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전남도
총무팀장
윤재광



전남도
총무과
주무관
강시영

도내 137개 기관·단체, 지역문제 해결 위해 맞손 전남 사회혁신플랫폼 출범!



배경 | 복잡·다양한 현대사회 문제를 기존 관 주도 해결방식으로 추진하기에 한계 존재
내용 | 도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
효과 | 도내 137개 기관·단체 참여로 혁신플랫폼 출범 및 성장환경 조성, 27건의 협업의제 실행

도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사회혁신플랫폼 출범」

최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가령 동네 쓰레기 처리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나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급격한 기후변화, 새로운 질병 등 국가나 전 세계적 차원의 난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획일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문제의 발생 현장에서 살아가고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남 사회혁신플랫폼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도내 13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올해 첫발을 내디뎠으며, 27개의 협업의제를 발굴·실행했다. 향후 플랫폼이 전남 지역문제 해결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혁신플랫폼이란?

사회혁신플랫폼이란? 공공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
→ 시민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적 문제,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 시민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새로운 사회적 혁신을 이끌어낸다.

주요 목표

- 시민참여** | 시민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 지역문제** |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혁신을 함께 고민,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 지역문제** |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혁신을 함께 고민,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운영 프로세스



시민 의견 • 다양한 분야의 협업 • **지역문제 해결**

우리동네 [민간연계]
전남 사회혁신플랫폼



새로운 유형의
문제 발생,
민·관 협력에서
해법을 찾는다

'20년 3월 코로나 1차 파동 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공동데이터 개방을 요청, 반경 1km 내의 판매처를 조회하고 재고상황을 알려주는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앱과 웹서비스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원칙적으로 비공개였던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의 역할 및 민·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다. 이처럼 기존 관 주도에서 탈피해 문제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정부 등과 협력해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사회혁신의 핵심이다.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어플

도내 137개
기관·단체 지역문제
해결 위해 뭉쳐

전남 사회혁신플랫폼은 도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민관 협업 플랫폼이다. 플랫폼에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 혁신도시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얻기가 어려웠으나, 직접 찾아가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총 137개 기관·단체의 신청서를 받았다.

출범식은 9월 말에 방역수칙을 지키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도내에서는 최초로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랜선관객을 초청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도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남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137개 기관 단체 참여



전남 사회혁신 플랫폼의
협업의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도내 사회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총 27건의 협업의제를 발굴·추진했다. 의제별로 원탁 회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의제 추진 시 필요한 인력, 자원,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연계·매칭했다. 의제 실행팀 주도로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조사, 교육,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전남사회혁신플랫폼 회의 사진

대표의제
'친환경 생태공동체
리빙랩' 추진성과

최근 신선, 냉동식품 택배 배달 급증에 따른 아이스팩 사용 증가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주시 시민과 공공기관 등이 협력한 사례다. 나주시 시민사회단체인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주도하에 나주시청과 빛가람기후변화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협력해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지역전통시장인 나주목사교을시장과 연계해 아이스팩을 보관·세척한 후 시장상인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행팀과 협업기관 실무자가 모여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다섯 차례 홍보 부스를 운영해 아이스팩 5천 개를 수거해 시장상인회에 전달했다. 향후에는 나주시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나주시 노인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해 10명의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원탁회의의 진행(5회)



홍보부스 운영(5회)



상인회에 전달(5천 개)

전남 지역문제 해결 허브로 성장 기대

'20년 성공적으로 출범한 전남 사회혁신플랫폼이 지역문제 해결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21년 200개 → '22년 250개 → '23년 300개)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협업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1년 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사회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전남도
농정기획팀장
김기평



전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곽주민

전국 최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배경 | FTA 등 농수산물 개방과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내용 | 전국 최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효과 | '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191천 명), 코로나19로 힘든 농어민 소득향상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키워 나가기 위해

'20년부터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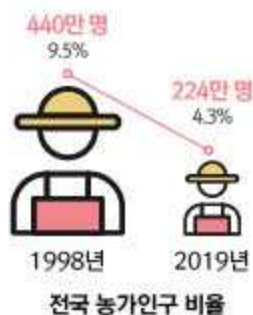
- '20년 지원 : 191,541명, 1,149억 원(도비 460, 시군비 689)

- 경영체별 : 농업 181,473명, 어업 10,002명, 임업 66명

식량주권, 환경보호, 농어촌사회 유지 등 농어업이 지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배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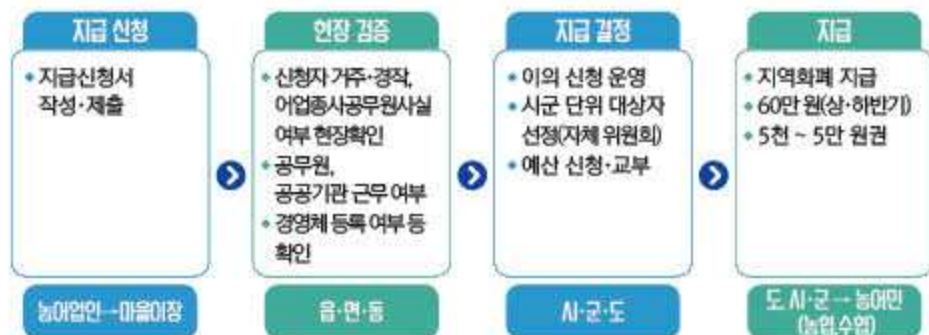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개방과 수급불안으로 농어가 소득은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어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업과 농어촌은 식량 공급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경관 및 전통문화 유지, 지역사회유지 및 도시문제 완화 등 많은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 희망을 주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서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한다. 연 60만 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주요성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특히, '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5월에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하여 위축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민국 대표 농도인 우리 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우리 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올해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을 마친 시·도가 강원, 충남, 충북 등 7개 시·도이고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21년에도 새롭게 강원, 경기 2개 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제도의 전국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경과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향후 발전방향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우리 도가 우선 추진하게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사업으로 반영되어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였고, 국회(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발의하고 입법 논의되고 있다.

21대 국회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입법 동향

-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박덕홍 의원 대표발의, '20. 6. 1.)
 - 지급대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지급금액: 월 최소 10만 원 이상 / 국가가 40~90% 부담
-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발의(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 6. 4.)
 - 지급대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와 이에 소속된 자, 1년 이상 농업 종사자
 -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이상 / 국가가 50~90% 부담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발의(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 11. 4.)
 - 지급대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업종사자
 - 지급금액: 월 최소 10만 원 이상 현금지급 / 국가가 40~90% 부담

전남도
상생일자리팀장
이상용전남도
일자리정책과
주무관
김경전

그린뉴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적극 브리핑

배경 |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 보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최적지

내용 |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송전선로 배후단지 개발 등 그린뉴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효과 |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48조 5천억 원 투자, 450개 기업유치, 12만여 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지역 일자리 12만여개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입니다.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1위의 해상풍력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최적지다. 전남도는 이를 활용하여 단일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년부터 '30년까지 총 48조 5천억 원 투자로, 450개의 기업을 유치·육성하여 12만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회의

전라남도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법은 없을까?



6대 프로젝트 선도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전남도는 바다·섬 등 풍부한 불루 자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했다. '블루 에너지'는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로, 전남도는 전국 1위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해 신안해역에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 중이다.

전국 1위의 해상풍력 잠재량

시·도명	잠재량 (10 ³ toe/년)	발전량 (GWh/년)	설비용량 (GW)	개발가능면적 (km ²)
전국	8,343	97,025	33.2	6,649
전라남도	3,189	37,086	12.4	2,473
점유율(%)	38%	38%	37%	37%

전국 최고의 해상풍력 발전계획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도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처음부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추진해 왔다.

어민단체, 지역주민과 4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 '19년 9월 9일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어민단체 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19년 11월에는 지역주민, 발전사,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전수의 공유 방안, 해상 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등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목포신항 배후단지과 기존 산업단지에 해상풍력 제조기업 40개사를 유치하고, 지역기업 410개사를 육성하여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117,506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공유, 제품 우선 구매 등 제조기업과 지역기업의 동반성장으로 해상풍력 기자재 국산화 등 기술·가격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19년 12월에는 해상풍력 핵심부품 제조기업 9개사와 총 6,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2030년 해상풍력 5대 강국' 선도

8.2GW는 서울과 인천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규모이다.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를 덴마크의 에스비에르항과 같은 세계적인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남 서남권에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2030년, 해상풍력 5대 강국'을 전남도가 선도해 나갈 것이다.

하반기

2020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전남도
청년지원팀장
김정주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주무관
박화숙

코로나19 주거비 부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 돕는다



배경 전남 청년의 31%가 전·월세에 살고, 매월 20~50만 원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청년 33%가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
내용 일하는 청년에게 월 주거비 10만 원, 최대 12개월 간 주거비 지원
효과 중소기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 및 안정적 지역 정착 도모

청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졌는데 매달 내는 전·월세 비용까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하여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닦아 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CEO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전·월세 부담으로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하는 청년, 도울 방법은 없을까?



전·월세 거주 청년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다

'18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31%가 전·월세에 살고 있으며 매월 20~50만 원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33%가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채사유는 부동산 대출이었다. 주거비 대책이 가장 시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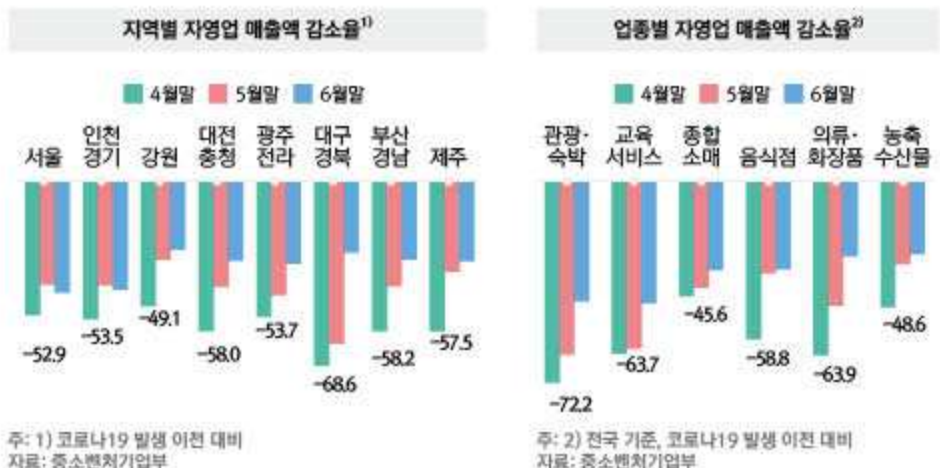
'19년부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지금까지 대상은 18~39세 전·월세 거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이었다. 매년 500명에게 월 주거비 1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왔다.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디딤돌 대출 등 정부의 주거 정책이 주택지원과 금융지원에 집중된 것과 달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특히, 타 시·도 유사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1인 가구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 가정에 폭넓게 지원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청년들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지원 확대

'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대면 기피로 매장 방문이 줄면서 자영업 매출액이 큰 폭 감소했다. 이에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종전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침을 변경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초기에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년 11월에 시군을 통해 모집을 실시했고, 청년 28명에게 추가 지원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여 취·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02

사회혁신 우수사례



우수사례

여수시 가치나눔냉장고

강진군 차이나는 배달소

안전사고 작은배려로 예방 할 수있어요

청년 창업농 인큐베이팅

바다가 품긴 벅찬 쓰레기

여주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장영

여주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팀장
김민이

같이 나누면 더욱 행복한 「가치나눔 냉장고」



- 배경** | 주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내용** | 읍·면·동 주민센터 입구에 나눔냉장고를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기부, 취약계층과 나눔
- 효과** | 주민 주도로 코로나19 결식 위기 가구 대응, 마을 중심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도모

주민센터에 '냉장고'를 설치해 볼까?

마스크에서 결식아동, 고독사, 소외된 이웃의 사례가 나올 때마다 고민에 빠졌다. “조금 더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고, 받은 이웃은 다른 이웃에게 나눈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쉽게 기부하며 누구나 가져가서 맛있는 한끼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주민들이 자주 가는 곳에 주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냉장고를 설치해 볼까?”라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20년 7월부터 여주시 주민센터 5개소에 **행복한 나눔냉장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에 거주하고 있는 □□씨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며 지내고 있었다.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도 운영하지 않고, 일용직 일자리도 자리를 잃게 되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진 □□씨는 주민센터에 복지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됐다. 상담을 마치고 연계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싶던 차, 주민센터의 직원의 안내로 **행복한 나눔냉장고**를 이용하게 되었고, 당장 한 끼 식사를 걱정하던 □□씨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가 전달됐다.

마중물을 부어
샘이 마르지 않기까지...

“다 가져가기만 해서 샘이 마르지 않을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사업 기획 단계에서 끊임없는 고민이 이어졌지만, 그 고민은 주민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이내 해결됐다. 기대와 걱정을 담아 한바가지 첫 마중물을 넣으니... 지역 주민들의 온정어린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농사지은 쌀



○○동에서는 직접 농사지은 쌀을 시작으로 인근의 병원 그리고 상가 주민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김장 김치



○○마트, 생협, YMCA, 교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나누는 익명의 후원자 등 식자재, 수요가 많은 물건, 필수 생활용품 위주로 매주 마중물을 부어가고 있다.

현판 부착



후원을 실천한 상가나 단체에는 행복한 나눔냉장고 후원 간판을 부착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물품의 수급문제 극복

당초 우려했던 대로 초기에는 몇몇 이용자로 인해 물건이 하루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 표지 부착, 후원 물품에 스티커 부착, 수시 진열'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 및 식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한정하여 제공하고 직접 기른 농산물(배추, 야채) 등은 수시 확인하며 진열하고 있다.



나눔냉장고에 기부 받은 식품품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할 수 있는
체감형 복지 실천**

'20년 7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5개소를 운영하기까지

쌀·곡식 등 대용량의 후원물품은 지역 업체의 후원받은 소분 장비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소포장하여 진열하며, 통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어르신 안부살피기와 겸하여 위문품도 전하고 있다.

나눔냉장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인지하고 맞춤형 복지와 연계한 사례도 있어, 더욱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행복한 나눔 냉장고'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 지역업체, 학교, 대형마트 등지에서 10,073점 이상의 '자발적 후원'을 받아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 3개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진오감동은넷
대표
김보균

어르신-청년 공감 프로젝트 「차이나는 배달소」



역신 브리핑

- 배경** |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장 보는 것이 힘든 여건
- 내용** | 지역청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장보기 대행, 물품보관 서비스 운영, 문화 프로그램 운영
- 효과** |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제공, 세대 간 공감대 형성

문제 발굴부터 사업기획까지 주민이 주도하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 주도의 행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회문제는 다양하지만,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남의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에 중점을 두고 '어르신 생활형 복지'에 대해 고민했다. 우선, 서비스 대상인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했고,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이 잦은 전통시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평소 우리는 전통시장에서 양손에 물건을 한 짐 들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던 것이다. 어르신들의 이러한 실생활 고민 해결을 위해 '차이나는 배달소'가 그 첫 발을 내딛었다.

강진 '차이나는 배달소' 시설 현황



생활불편 해결로 체감형 복지 실현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장보기가 어려우신 분, 필요한 물건은 많지만 혼자서는 들기 버거운 분, 물건은 샀지만 다른 볼일이 있어 물건을 맡길 곳이 필요한 분,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차이나는 배달소'로 오세요~!" 「차이나는 배달소」가 어르신들의 작지만, 어쩌면 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그 문을 열었다.

'배달소'는 '20년 6월부터 강진을 5일장 "오감동"을 찾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대행·배달, 물품 보관 서비스 등 이색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선, 장보기의 시작과 끝인 군내 버스 승강장에 냉장고와 싱크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작은 보급자리를 만들었다.



물품 보관용 대형냉장고

처음 배달소를 처음 접한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들의 도움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아마도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피해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어 어르신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배달소의 취지를 어르신들에게 잘 설명드리는 것이 시급했다. 지역신문 보도, 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했고, 한 두 번 이용하신 어르신들의 입소문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석 명절 준비는 강진 오감동시장에서



지역신문 보도



지역신문 광고

단골 어르신은 “평소같으면 부피나 무게 때문에 사갈 엄두도 못내던 것들을 지금은 배달소가 있어 마음 편히 장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배달소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함을 표현했다. 배달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장날 나들이는 보통 15분에서 30분 이상 군내버스를 타고 강진읍에 나와 병원 진료와 미용실 방문 등 다양한 일정들이 포함된다. 그동안 말길 곳이 없어 바리바리 들고 다녔던 짐들을 배달소에서 보관해주니, 마음 편히 다른 일정들을 거론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보기 대행



짐 들어드리기



물품 보관



버스에 짐 실어드리기



프로그램(건강박수)



프로그램(퍼즐맞추기)

청년과 어르신의 소통 창구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배달소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이다. 청년과 노년 모두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이지만 서로 접할 기회가 적어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세대 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감장소로 배달소를 만들어, 사업의 주체인 청년과 수요자인 어르신들이 세대차이를 극복하고 배달소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세대 간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개인위생과, 코로나 예방교육, 각종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주요 관심사인 치매예방을 위해 퍼즐 맞추기, 건강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취업난 속에서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원봉사자 172명을 포함하여 총 236명에게 청년층 일자리 경험을 부여했다. 그 결과 배달소는 6개월 간 총 32회 운영했으며, 총 이용인원은 2,260명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차이나는 배달소 이용 현황



사업기간

'20. 6. 14. ~ 12. 4.

운영횟수

32회(5일 장날)

이용현황

- 연 이용인원(합계) 2,260명
- 물품 배달 서비스 1,065명
- 물품 보관 서비스 195명
- 공감프로그램 참여 1,000명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차이나는 배달소

“혁신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해준 뜻 깊은 사업이었다. 그 결과, 강진군 “차이나는 배달소”는 '20년 말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세대간 소통, 고령화 사회의 문제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사회혁신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확산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민간 주도사업으로서 투자대비 성과가 괄목하다는 점과 타 지자체의 상황과도 유사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제2, 제3의 차이나는 배달소가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장날마다 배달소를 찾는 어르신들과 버스에 장바구니를 실어드리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은 우리 사회를 기대해본다.

노인 안전사고, 작은 배려로 예방하다 「안전매트와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배경 | 홀로 사는 어르신 자택 내 낙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
내용 | 출입구, 화장실, 샤워실 등 어르신 활동공간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안전교육 실시, 쓰레기 정화 지원
효과 |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독거노인 가정 안전환경 개선

노인에게 암, 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낙상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안전사고의 절반은 낙상사고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는 ‘노인에게 암, 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낙상이다’라며 사고 위험성을 강조하는 글을 보았다. ‘혼자 생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의 경우 낙상사고가 일어난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주요 낙상 안전사고는 현관 출입구, 화장실, 샤워실, 침실, 계단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통계를 통해 어르신의 활동공간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논슬립 등의 설치를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다

그러던 중, '20년 출범한 전남사회혁신플랫폼 사회혁신 의제 공모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개발비를 지원 받게 됐다. 의제 개발비로 원탁회의를 꾸리는 밑거름이 되었고,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의 자원연계 활동으로 전남개발공사와 순천시가 함께 협업테이블을 구성하게 됐다.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의제 실행비를 지원하여 안전매트와 안전손잡이 재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순천시는 사회적배려대상 25가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향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안전손잡이 외에 쓰레기 치우기 2가정, 주민 안전교육 1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순천시 향동행정복지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향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소득, 건강, 가족구성원 등이 고려되어 안전환경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했다.



안전 손잡이



안전 매트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1회(주민 20명 참여), 안전손잡이와 매트세트 구입비, 폐기를 쓰레기차 2대를 지원했고, 개발공사 직원들 20명이 현장에 나와 직접 쓰레기 치우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남
사회적협동조합
김보균



다양한 기업·공공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대

본 의제 실행을 위해 전남사회혁신플랫폼, 전남개발공사, 순천시, 그리고 해늘 협동조합까지 '20년 10월 21일~22일까지 2일간 순천시 향동 일대에서 안전손잡이 설치와 쓰레기 치우기를 함께 했다. 협업의제인 '안전사고 작은 배려로 예방할 수 있어요' 실행을 위해 공사는 순천시, 해늘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고령자 가정에 안전손잡이 및 안전매트를 설치하여 보호자 없이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등 의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남개발공사는 김철신 사장을 비롯해 직원 20명이 함께 의제 실행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공사 특유의 장점을 살린 재능기부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 환경개선,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전손잡이 설치

성과 및
향후 계획

향후 안전손잡이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으로 노인의 안전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특히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기업, 공공 기관, 지자체 등과 사회공헌사업 매칭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전남사회혁신플랫폼에서는 전남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협력하여 의제실행비를 복지기금에서 확보하여 사업비를 향후 2배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2020년 전남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실행의제 우수사례



호남원예고등학교
교장
김 찬 중



HYI 팀장
김 민 지

소멸위기 농촌의 작은 씨앗
「HYI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팅」



- 배경** |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70%를 육박하여 고령화되고 있지만, 청년 후계 농에 배움의 터가 부족한 상황
- 내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창업 CEO를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 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효과** | 지역 청년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문화 조성

‘텀 비어가는 농촌’ HYI”가 단초가 된다.

우리나라 40세 미만 ‘청년 농가 경영주’는 현재 전체 농업경영체 수 대비 1%에 못 미치고 있다. 60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70%를 육박하여 농업경영인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을 읍·면 지역 농촌마을 청년 농가 수는 네 마을 당 1명꼴로 농업 농촌이 해가 거듭될 수록 텅텅 비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농업 농촌을 유지할 인적자원 위기 상황에서 현재 후계농업인 육성이 정부 주도로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기에 농업생산자 단체 및 광역·기초 단체 중심 인력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한 사정이다.

청년창업농을 육성하는 호남원예고등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미래 농업선도고등학교를 운영하며 그 후계농업인 양성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년 2월 김민지, 배상인 졸업생 등은 학교가 마련한 식물공장에서 셀러드 야채를 중심으로 재배, 가공 및 유통을 포함한 마케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세내기 CEO를 맡게 됐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이 예측됐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야 결과가 있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1) HYI : 호남원예고등학교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혼자 열 걸음보다
여럿의 한걸음이
더 소중한 이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CEO는 여전히 학교의 선생님 등 주변의 관계된 전문가 및 기관의 지팡이가 필요했다. 이에,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을 찾게 되었고 플랫폼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나주시청 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우선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에 있어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의 큰 도움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운영 측면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나주시청에서도 열정적으로 지원했다.

시설을 구축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허허벌판을 걷는 새내기 CEO에게는 부모님의 품처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



청년창업농 특강



창업아이템 전시

HYI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데 플랫폼 역할을 해준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꿈은 있으나 용기가 부족한 HYI에게 소중한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업현장을 다루는 실습이나 선배 농업인과의 연결뿐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은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먼저 지난 10월, 첫 특강을 진행했는데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인 '농지은행'을 소개했다. 오는 12월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 전반에 접목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 '스마트팜'에 대한 특강도 실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통 부분의 정보를 전달했으며, 소비자 연결을 보다 간편하게 하는 로컬 매대를 마련하고 현장견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했다.

HYI는
소멸위기 농촌의
작은 씨앗이 될 것!

HYI는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다. 아직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사회 여러 손길이 곁에서 함께해야 할 시간이다. HYI의 역량을 키우는데 온 동네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지난해 다양한 도움으로 이들의 걸음마는 곧 걷는 단계로 성장을 앞두고 있다. 함께 지켜보고 모두가 손을 내밀어 준 덕분일 것이다. HYI는 이렇게 태어났다.

HYI는 조만간 도내 22개 시군에 유사한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팅을 임태하는 산파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덧붙여 전남의 22개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것이다. 종전의 국가가 개입하여 육성하던 청년창업농업인 육성은 이제 지역의 당사자들이 솔선하여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와 본의제 참여기관들이 촉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농업교육관련 학교 및 기관에서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역의 요구에 걸맞게 운영할 책무가 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지만 HYI는 이 지역 전남의 농업 농촌은 물론 경제에도 영향력 있는 심장으로서 성장해야 하기에 이제 주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주변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배품의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다.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고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생태적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지역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HYI는 작은 불씨를 머금은 호롱불이 될 것이다.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는 호롱불이 꺼지지 않도록 HYI와 함께하리라 본다.



완도사회혁신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 경 석

바다가 품긴 너무 벅찬 쓰레기 「Beach Combing」¹⁾



혁신 브리핑

- 배경** | 바다, 해변가에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 주도의 해양정화 사업에 한계 존재
- 내용** | 주민 중심으로 요트체험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업사이클링 공예품 제작
- 효과** | 해양쓰레기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운동 붐 조성

「바다쓰레기 ZERO」 추진

‘20년 6월에 전남사회혁신플랫폼에서 행정안전부의 ‘20년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신규 의제에 공모했다. 주민의 삶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주도로 의제를 발굴하고 민관기업의 협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방식과는 달라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주민주도 의제 발굴과 자원연결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확산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완도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우리들은 완도사회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4명의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전남사회혁신 플랫폼 의제공모를 통해 의제 실행비를 지원받아 우리의 항해는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였다.

“바다쓰레기 없는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자”

바다쓰레기 환경 정화 활동



1) Beach Combing : 바다표류물, 쓰레기 등을 빗질하듯 모으는 행위

‘20년 8월 7일 오전 11시, 완도문화원 2층 세미나실에서 완도지역 혁신가와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실무자들이 모여 ‘바다가 품긴 너무 벅찬 쓰레기-Beach Combing’ 사업추진 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청산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에 바다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건의를 군에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제부터라도 민간 주도로 군,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실질적, 지속적인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대다수 참석자는 현재 진행된 바다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는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식 계몽 활동 전개와 어장 정화제도 도입, 바닷가 해양쓰레기 분리 집하장 설치 등을 장기적인 추진사항으로 논의하자며 뜻을 모았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도군 해양정책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완도전북주식회사, 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이블 구성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우리는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세웠다. 먼저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으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섬 해양오염에 대한 어민들의 관심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쓰레기 최소화 노력을 유도했다.

또 하나는 수거 쓰레기 업사이클링 작품 제작 및 전시였다. 전시를 통해 어민들의 관심 및 국내 관심을 유도하고,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며, 전시물을 보는 관람객들에게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업사이클링을 통해 예술작품을 만들고, 완도를 장보고 동상 옆에 설치하여 도민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방법을 생각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Beach Combing의 시작이었다.

요트 체험하고
바다쓰레기 줄이는
색다른 프로그램

여름바다가 끝나고 9월이 되자 본격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시작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도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요트를 직접 타보고 다도해 섬을 방문하여 바다쓰레기도 줄이는 해양레저와 자연정화활동을 접목한 일석이조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가 알려지면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사무국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했고, 전국사무국과 전남사무국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바다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Beach Combing with yacht' 추진사업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뜻을 올렸다. 오전 9시, 완도읍 항만터미널 선박계류장에서 모인 12명의 참가자들은 항구를 떠나기 전 참석자 소개와 행사 일정에 관한 브리핑 시간을 갖고, 기념사진 촬영 후 요트와 모터보트에 각각 나눠 타고 출발했다.

약 1시간의 항해 후 행선지인 완도군 청산도 소재 소모도라는 섬 항구에 도착, 인근 해변으로 이동하여 지난 태풍의 여파로 떠밀려온 각종 바다쓰레기를 줍는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20년 9월 25일 (1차)
완도군 소모도



20년 10월 18일 (2차)
완도군 신진면

이날 해양쓰레기는 1톤을 수거했고, 완도요트협회 요트 2대를 이용하여 해안가로 운반했다. 최수미 사무국장(지역문제해결플랫폼전국사무국)은 "전국 네트워크의 다양한 실행 의제 중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는 확신으로 오늘 참가하게 됐다. 와서 체험해 보니 육지 못지않게 바다쓰레기 문제 또한 대단히 심각하며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신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금 인식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수거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폐용기를 발견하고, 이제 바다쓰레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한·중·일 삼국 모두의 문제라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10월 중에 2차로 'Beach Combing with yacht' 행사를 추진하여 또다른 요트체험 코스 개발과 환경정화활동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해양쓰레기 Zero"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진행

이와 더불어 완도군 해양정책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 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완도문화예술협동조합 등 유관기관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양쓰레기 Zero화 실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원탁회의가 20년 11월 20일 완도문화원 3층 아트홀에서 완도사회혁신네트워크 주관으로 개최됐다. 해양쓰레기수거캠페인(with yacht) 영상 시청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의제 발굴 및 실행을 통해서 '원탁회의'라고 하는 협업 테이블 구성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개발됐다. 참석한 협업 기관 및 사회단체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해양보전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완도사무소, 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등 많은 기관에서 함께했다.

원탁회의는 해양쓰레기 해결이라는 대명제 아래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는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였으며 앞으로 꾸준히 의제를 실천해 나가는 협업 테이블로서의 기능이 추가됐다.



해양쓰레기 정리를 위한 원탁회의

성과 및 향후계획

해양쓰레기 심각성 알리기 위한 완도지역 공유 원탁회의 2회를 개최, 20명 참여로 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21년에는 해양쓰레기 심각성 알리기 캠페인 참여, 해양쓰레기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완도문화원 앞이나 장보고 동상 앞에 상시 전시 예정이다.

특히, 학생교육 환경교육 활동 등 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원탁회의에서 제안되었던 의견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많은 협업기관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Zero"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2020년 도민을 웃게하는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 사회혁신 우수사례

발행인  전라남도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부서 전라남도 총무과

내용문의 T. 061)286-3321~3326

F. 061)286-4749